

제247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수인선’ 25년 만에 완전 재개통 4



김일주 대표 “술만 온라인 판매 제한, 역차별” 23

코스피(10월) **2396.48** (+20.67P)  
코스닥 **884.30** (+14.83P)  
환율(달러당 원화) **1184.90** (-4.2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15%** (변동없음)

##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PC방·노래방 200만원

7.8兆 포함 12.4兆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문, 조속한 국회통과·집행 당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또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현금으로 준다.

▶관련기사 3·4·6면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연매출 4억 원 이하면서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이 100만 원씩 받는다.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종사자 15만 명은 200만 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 원씩 폐업점포 재대전 장려금도 지급한다. 이렇게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338만 개 업체의 약 86% 수준이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취업

4차 추경 주요 지원 사업(단위 : 명)

|                    |      |             |
|--------------------|------|-------------|
| 매출 감소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34만 | 100만 원      |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 47만  | 150만~200만 원 |
| 폐업점포 재대전 장려금       | 20만  | 50만 원       |
| 특고 및 프리랜서          | 70만  | 50만~150만 원  |
| 특별돌봄 지원비           | 532만 | 20만 원       |

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며 초등학교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긴급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생존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올해 신규 창업 소상공인이나 연매출 4억 원을 조금 웃도는 사업장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이웃들 기자 flowerslee@



탐스러운 ‘햇밤’이 활짝

수확하고 있다. 농원은 10월까지 ‘밤줍기’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수확의 계절이다. 10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말재농원에서 주인 부부가 참마와 태풍을 이겨내고 탐스럽게 익은 햇밤을 연하뉴스

카카오게임즈 ‘파상’ 코스닥 ‘시총 5위’로 1억 투자자 첫날 19만원 평가의

10일 오전 9시 정각, 카카오게임즈 투자자(주주)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는 증시 개장과 함께 환호성이 터졌다.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에 상장되자마자 공모가(2만4000원)의 2배인 4만800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기 때문. 주가는 곧바로 하루 상승 제한폭(30.00%)으로 직행해 6만2400원을 기록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를 찍고, 이어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소위 ‘파상(파블+상한가)’을 쳤다. 이제 관심은 SK바이오팜이 세운 ‘3연상(3거래일 연속 상한가)’이다.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단 한 차례 하락도 없이 상한가를 유지한 끝에 6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상승세 속에 공모가 기준 1조8000억 원이던 시가총액도 4조5680억 원대로 하루 만에 153.78% 증가했다. 상장사 시총 순위는 5위.

공모주 청약에 1억원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는 약 19만명의 평가차익을 얻게 됐다. ▶15면에 계속 이인아 기자 jih@

## 삼성·SK 등 亞 반도체 ‘31兆 화웨이 쇼크’

美 제재로 15일부터 부품공급 중단  
韓·日·대만 업체 대체 공급처 고심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삼성·SK 등 아시아 반도체 업계에도 큰 충격을 몰고 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15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를 기해 발표되는 미국의 대(對)화웨이 제재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 기업이 약 2조8000억 엔(약 31조 원) 규모의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화웨이는 이들 3개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고객사인데, 당장 거래에 차질

이 생기면 대체 고객을 찾지 않는 이상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외국산 반도체라도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이동통신 기지국 생산 부품 조달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화웨이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계에도 타격이 만만치 않다.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는 불가결한데, 미국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로 압도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아시아 3개국 중 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기업들의 부품 공급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른다. 특히 소니 이미지센서는 화웨이 의존도가 수천억 엔 규모로 상당히 커서 고민이 크다. SK하이닉스에도 화웨이는 큰 고객이다. 이에 SK는 수출 허가 신청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반도체 설계업체인 미디어텍은 이미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미디어텍은 화웨이와의 거래액이 500억 엔에 달한다. TSMC는 올해 화웨이에 약 6000억 엔 어치를 납품한 만큼 대응이 주목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대한민국 경제 희망 ON

대한민국 산업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은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

- 대한민국 기간산업 지원용 **기간산업 안정기금**
-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용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회사채시장 안정화 지원용 **기업유동성 지원기금**
- 혁신/벤처 기업 지원용 **스타트업 위기극복 프로그램**



한국산업은행 준비금시인 심의필 제2020-08-005호(2020.08.25-2021.08.24)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및 일부 상품에 대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성 상품의 경우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기업대출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음료에서 과자·꽃까지... '구독' 多 됩니다

## 비대면 소비 날개 달고 날아오른 '구독 경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독경제' 시장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구독경제는 고객 입장에서 초기 비용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을 키워왔는데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언택트 소비 덕에 '구독경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0일 KT경영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25조 9000억 원이던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 규모는 올해 40조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디트스위스가 추산한 올해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5300억 달러(약 628조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뿐 아니라 식품업체까지 구독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쇼핑의 통합온라인몰 롯데온(ON)은 롯데백화점의 베이커리 브랜드 '여섯시오븐' 제품의 구독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했다. '여섯시오븐'은 달걀·설탕 등을 넣

롯데온 '여섯시오븐' 빵 제공 신세계백, 생화·난 등 매달 공급 현대그린푸드 주문량 26% ↑

고객 비용절감, 기업 수익 안정 "올해 국내 시장 40조 넘을것"

지 않고 밀가루와 천연 효모, 물로만 반죽하고 16~24시간 자연 발효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기구독 상품은 딸기 식빵, 무화과 오랑주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기를 끈 제품 위주로 한 달 기준 주 1회씩 총 4번 받아볼 수 있다. 상품 구성은 가격에 따라 8만 원, 11만 원, 14만5000원 등 3가지이며, 개별 구매했을 때보다 10%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명절 선물세트로 과일과 꽃 구독권을 내놨다. 과일 정기 배송 서비스는 1회당 4만5000원, 월 18만 원을 내면 매주 목요일 신세계백화점 과일 바이어가 엄선한 제철 과일 3~5종(월 20만 원



롯데제과가 6월에 선보인 '월간과자'는 3시간 만에 완판됐다. 사진제공 롯데제과



신세계백화점이 명절 선물세트로 과일·꽃 구독권을 내놨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구독경제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상당)을 문 앞에 가져다준다.

꽃 정기 배송 서비스도 올 추석 본판매 기간인 14일부터 처음으로 선보인다. 배송지는 수도권에 한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기정화 관엽식물, 생화, 난식물 중 하

은 1~15일 대비 35.7%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식품업계도 제과, 아이스크림 등 새로운 상품군을 앞세워 구독경제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6월 과자 구독서비스 '월간과자'를 선보인 데 이어 7월에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구독 서비스 '월간 나뭇루'를 발매했다. 특히 '월간과자'는 1차 모집 시 3시간 만에 마감에 끝난 데 이어 2차 모집도 조기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베이커리 업계도 구독 서비스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푸레주르는 업계 최초로 7월부터 월간 구독 서비스를 개시, 직영점 9곳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역시 같은 달 월간 구독 서비스를 직영점 30곳에서 테스트 서비스에 들어갔다.

정영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당장 구독서비스를 수익성을 창출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 선택지를 넓혀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김혜지 기자 heyji@

## 산불·홍수·태풍 지구촌 강타... "기후변화, 새 금융위기 부른다"

###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보고서

대형 산불과 홍수, 허리케인, 태풍. 올해 지구촌을 강타한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앙이 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산하 기후변화자문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이 금융시스템에 혼란(chaos)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 생산능력·고용·소득 등 저해 경제붕괴 우려...탄소세 부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재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의회가 탄소세 부과 방안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더 긴급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승하는 지구 평균 기온을 억제하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

으면 기후변화 영향이 경제 생산능력을 떨어뜨리고 고용과 소득, 기회 창출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대차대조표에 '폭포 효과(Cascading Effect)'를 유발하는 '무질서한 자산 재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데, 미국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어 이런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산업이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은 기후변화가 특정 산업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시스템 충격'

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산하 책임투자 원칙(PRI)은 "기후변화와 이를 퇴치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로 인해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이 2조3000억 달러(약 2727조 원) 증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원들도 지난해 "기후변화가 가난한 나라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인류는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밥 리터먼 기후변화자문위원장은 보고서에서 "현재 시장은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이 탄소에 대해 세금 등 적절한 가격을 부과하고 기후 위기를 퇴치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인센티브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시스템이 이 실존적 위험을 규모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변화 결과를 과소평가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면서 환경 규제를 철폐했다. 더 나아가 풍력발전소가 암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미 산불과 심각한 홍수, 대규모 허리케인 등 올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파괴적인 기상재해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초등생 이하〉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자녀 1인당 20만원

文대통령 “피해 큰 업종 집중 지원”  
추경안 절반 3.8조 소상공인 투입  
소진공 등 해당 기관 통해 신청  
돌봄지원도 상반기 미취학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금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 구분              | 내용                    | 대상                                    | 규모       |
|-----------------|-----------------------|---------------------------------------|----------|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 소상공인 지원(3.3조)         | - 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최대 200만 원 | 291만 명   |
|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5000억) | -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 50만 원             | 20만 명    |
| 긴급 고용안정         | 근로자 고용 안정(1조)         | - 초과 수요, 일반업종 60일 확대                  | 24만 명    |
|                 | 청년 특별취업 지원(1000억)     | - 특고·프리랜서 최대 150만 원                   | 70만 명    |
|                 | 실직자 지원(3000억)         | -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                      | 20만 명    |
|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 생계 지원(4000억)          | - 중위 75% 이하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 88만 명    |
|                 | 빈곤층 자활사업(300억)        | - 중위 50~75% 자활 일자리                    | 5000명    |
| 긴급돌봄 지원 등       | 아동 특별돌봄(1.1조)         | - 미취학·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 532만 명   |
|                 | 가족돌봄휴가(1000억)         | - 최대 15일로 확대                          | 12만5000명 |
|                 | 통신요금(9000억)           | -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료 2만 원               | 4640만 명  |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모두 3조 2000억 원 규모로 29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에는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추후 공고할 계획이다.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업종 중심으로 1000만 원까지 저리 용자로 지원하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용자를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 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재산 6

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

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532만 명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료 2만 원도 지원한다. 9000억 원 규모로 4640만 명이 대상이다. 통신사가 감액해서 고지하는 형식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7조1000억 원, 7조5000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4조6000억 원 + α’ 규모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전에 현금지원 사업 지급이 착수될 수 있게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되게끔 준비 중”이라며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정위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나랏빚 847조...자식세대 떠넘겨” 추경 필요성·선별 지원 이견 적어

### 경제전문가 반응

전문가들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제적 거리두기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부 정책은 문제가 있지만, 현 상황이나 재정지출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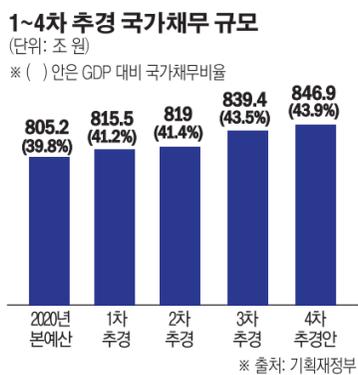
보수성향 경제학자인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도 “지금 상황만 따지자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급격히 악화한 재정건전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106조1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6.8%포인트(P)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예상했으나,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4.1%P 추가로 오르게 됐다.

조 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왔다”며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차입을 하는 부모는 없지만, 정부는 그렇게 한다. 이번 4차 추경과 별개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가 터져 기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에 올라탄 모습”이라



고 비판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선별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재정이 지원되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됐는지 확인해 대상자를 추린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제도적 복지’와 다르다”며 “홍수나 태풍처럼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를 봤는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가구소득 측면에서든, 경기보장 측면에서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든 효과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PC방 등 특정 업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올림픽보다 큰 운동회

관객도 박수 소리도 작은 경기지만 어린 선수들의 각오는 올림픽만큼 큼니다

건강한 체력과 인성이 자라는 꿈나무 체육대회는 세상 가장 큰 운동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은 사람입니다

KYOBO 교보생명

교보생명엔 꿈나무체육대회는 체육권·우무 발달육성하기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입니다

# 여당서도 비판 나온 '통신비 2만 원 지원'

**13세 이상 전국민에 지급  
이재명 "승수 효과 제한적  
자영업자 매출 도움 안 돼"  
야 "포퓰리즘...재정 우려"**

'언 발에 오줌 누기'일까, '가려운 등 긁어주기'일까.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점을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같은 집권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꾸준히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은 앞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되면서 배제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규모는 국민 한 명당 2만 원, 1회인 점을 들어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지원의 경우 승수효과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상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도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지원이 효과 없다고 정부, 여당에 반기를 드

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포퓰리즘이라며 혹평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대표 오찬 회동에서 "어제 갑자기 통신비 2만 원을 나눠 준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재정 여력 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밝힌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피해 상황 기준이 아닌 13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도 모호하다"면서 "통신비를 지원한다면, 절반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피

해업종 등에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집중지원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사가 나머지 절반을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지원해서 승수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통신비를 소득이 높은 국민까지 일괄 지원하는 까닭에 승수효과가 적은 것"이라며 "특정 항목에 한해 소득이 높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재정 투입에 비해 승수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마찬가지로,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득이 높은 국민에게 돌아간 부분은 승수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초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양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석 연휴 KF94마스크 690원에 판매

**정부 '추석 민생대책' ... 직원 경조사비 20만원까지 비과세**

추석 연휴 기간 공영 흡수점에서 KF94 마스크를 장당 690원에 판매한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는 모든 종류의 마스크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영흡수점 채널에서 마스크 판매 정규 편성을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대폭 늘리고, KF94 마스크는 690원에 판매하는 등 시가보다 싸게 내놓기로 했다. 또 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전국 지자체에 있는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 전 품목을 평균 30% 할인된 가격에 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

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 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 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 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 원 이상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의 1.3배로 늘린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정부, 택배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총원

**추석연휴 택배 종사자 안전 강화**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10% 이상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택배가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해 증가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 강화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쿠팡, 마켓컬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 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

물량 관리 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 사항(2차)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권고사항을 보면 분류작업 인력을 한시적으로 총원하고 휴게시설 확충, 지연 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건강 이상 시 택배사 분사에 즉시 보고, 연 1회 이상 정기적 건강검진,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 그늘막·냉방기 등 공급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추석 명절 성수기에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 자체점검 및 정부·지자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4월 16일에는 택배 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과 종사자 조기 총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해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매일 점검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며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택배 차량 신규 증차를 불허하는 등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 사상 최대  
중 공세에 모듈 국산 점유율 하락**

올해 상반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2GW(기가와트)를 넘어섰으나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로 국내 태양광 모듈의 국산화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의 공세에 맞서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 2호점에서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진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공유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진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업계·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올해 7월 도입된 태양광 탄소인증제, 내년 도입할 예정인 RE100 등 태양광 산업 관련 주요 제도와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반기 사상 최초로 2GW를 돌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태양광 설치량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 생산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3조5919억 원, 영업이익은 88.4% 급증한 172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김해 산업단지의 태양광. 사진제공 에너지공단

다만,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은 67.4%로, 작년 상반기 79.8%보다 12.4% 포인트 하락했다. 거대 내수 시장을 토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국산 점유율 하락했지만 국산 모듈 설치량은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라 작년 상반기 대비 40% 증가하는 등 국내 태양광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업체는 올해 상반기 모듈 수입액 1억7200만 달러의 3.3배에 달하는 5억7300만 달러 규모 물량을 수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을 지속해서 위협하는 만큼, 우리도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국내 시장을 고효율·친환경 시장으로 전환하고,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수인선' 25년만에 완전 재개통

**인천서 분당까지 한 번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였던 수인선이 25년 만에 완전히 재개통된다. 수원역에서 분당선과 바로 연결돼 인천에서 분당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역에서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이 12월 전 구간 개통된다고 밝혔다. 수인선은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협궤철도다. 이를 표준궤로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데 총사업비 2조74억 원이 투입됐다.

2012년 6월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송도를 잇는 13.1km 구간이며,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송도(7.3km)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역을 운행해 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수원~한대앞 구간의 개통으로 기존 협궤 노선 폐선(1995년 12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원과 인천 구간이 하나의 철도로 연결된다.

또 수인선(수원-인천)은 분당선(수



원-분당-왕십리·청량리)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된다. 수인선·분당선 직결 시 총운행 거리가 108km에 달해 수도권 전철 노선 중 경부선(166.7km)과 경의·중앙선(128km)에 이은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AI 뉴스 편집, 사람 개입 여지 충분... 검증 필요”

## 포털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 전문가 의견은

포털들, 영업비밀 이유로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 꺼려  
“사전에 설정값 입력하면 해당 성향 따라 자동배열 가능”  
“정치적 중립 여부 판단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 만들어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명 ‘카카오 소환’ 논란이 커지며 포털의 뉴스 편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업체들은 100%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 편집을 하고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5년 6월부터 모바일 뉴스에 자체 개발한 AI 뉴스추천 서비스 ‘루빅스’ (현재 카카오)를 도입했다. 2017년 4월에는 PC 버전 뉴스에도 적용했다. 네이버도 2017년 2월 맞춤형 뉴스 추천 알고리즘 ‘에어스’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언론사들이 개별 관리하는 뉴스 영역을 제외한 일반 뉴스에선 지난해 4월부터 AI가 전적으로 뉴스를 배열한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스 편집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여전히 비공개다. 영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전문가들은 알고리즘 공개나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포털업체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100% 활용한 뉴스 편집을 주장하며 답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어떻게 뉴스 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AI인지 밝혀야 한다”며 알고리즘 공개를 주장했다.

인공지능 전문 개발자 A 씨는 “AI를 통한 100% 뉴스 편집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사전에 설정해둔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은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운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자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있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A 씨는 “뉴스 편집을 AI 알고리즘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코딩 단계에서 사전에 설정값을 입력한다면 해당하는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배열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럴 때 초기 단계부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과는 나와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선택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학습을 했는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공정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했는지 중요하다”며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공개되면 검색어 조작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위원을 뽑아 공개 검증단을 꾸리는 등 중재안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포털의 인공지능 편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포털업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만 내세우며 면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며 “인공지능은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박소은 기자 gogumee@

# 美, 화웨이 추가 제재 셈법 복잡한 전자업계

디스플레이·반도체 ‘타격’ 우려  
스마트폰·통신장비는 ‘반사이익’  
“중장기적 영향 제한적일 것”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가 15일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전자업계의 셈법은 복잡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제재에 따라 15일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 메모리는 물론 5G(5세대 이동통신) 모바일·모바일 AP 등 시스템 반도체까지 공급할 수 없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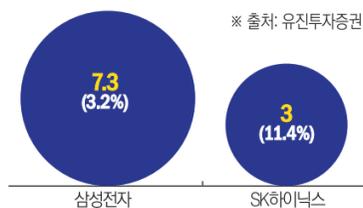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화웨이에 스마트폰용 패널 공급을 중단한다. 화웨이 제재가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업체의 화웨이 패널 공급도 끊기게 됐다.

반도체는 일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화웨이는 애플, 도이치텔레콤, 테크트로닉스, 버라이즌과 함께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로 꼽힌다. 이 가운데 화웨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3%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기준 약 7조3700억 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도 화웨이 매출비중이 11.4% (약 3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액은 208억 달러(약 27조 7000억 원)다.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 중단으로 메모리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 외 중국 고객사로 매출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승인을 받고 화웨이에 반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매출 대비 화웨이 비중  
(단위: 조 원, 2019년 매출 기준 추산)



체를 공급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화웨이 물량이 많지 않아 화웨이 제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속적으로 고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통신장비 쪽에서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중국 시장의 경우 샤오미, 오포, 비보 등 현지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겠지만,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 갈등으로 인도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47~4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웨이가 3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해온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의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델로로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31%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7위에 머물렀지만, 최근 세계 1위 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8조 원대 계약을 맺으며 주도권 강화를 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국내 기업의 일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고객사 다각화 전략을 적극 펼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스마트하게 돈버는 지갑, 시럽웰스

SK 멤버십 SK 금융 membership Wealth

시럽웰스는 시럽웰렛 안에서 손쉽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금융 멤버십입니다.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본 광고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지침은 증권사 투자지침을 따릅니다.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 결정은 신중히 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보장의 특성이 없습니다.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또는 수익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또는 수익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또는 수익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또는 수익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또는 수익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책임론 부상

### 국민의힘 특위, 횡령·배임·자본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최근 3년간 임원회의 참석 정황... 편법증여 탈세 혐의도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창업 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사태 관련 이 의원을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실질적 경영여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법, 국제법, 증여세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

법상 주주가 유한책임 사원으로 돼 있지만, 가족회사 형태로 실질적인 개인회사로 운영했을 경우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 국제기본법에 따르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 실제 누가 운영했느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특위 소속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상법, 세법상 모두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시 10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들이 과연 회사 운영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7년간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록된 임원진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나오고 있다.

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인 자금 흐름도 불투명해 이 외에도 자금 세탁, 세법 위반 등 상당히 많은 의혹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

밖에 횡령, 배임 등 상법 관련한 또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다.

특위는 이날 이 의원과 관련한 횡령(약 18억 원)과 배임(약 920억 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고발,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 씨가 2014년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대상은 이경일 씨가 아닌 이 의원인 것으로 적시돼 있으며 이는 형제간 공모 여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500억 원이 넘는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한 횡령·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약 378억 원에 달하는 타이이스타

항공기 임차 채무, 이 의원 딸인 이수지 전 대표의 오피스텔, 포르세 차량 사적 사용 등의 배임 건도 포함됐다.

정의당도 이 의원 의혹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물으며 "212억의 재산을 가진 이 의원은 사채출연 등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스타항공 노동자 640명이 개인 이메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직원들이 생존의 절벽으로 몰리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유미 기자 jscs508@한영대 기자 yeongdai@

## 與野 추경 합의... 추석 전 재난지원금 나올 듯

### 이낙연·김종인 협치 시동 매월 1회 정례회의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여야 간 협력이 필요한 내용에 합의를 이뤄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다.

이후 두 대표는 여야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은 △월 1회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 △공약 및 정당·정책 공동사항 협의 △4차 추경 편성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 등 총 4가지다.

먼저 여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중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여러 지원을 국민이 빠르게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대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회장 주재 오찬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표 정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4·15 총선 공약과 각 당의 정당·정책 중 공통된 사항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사무처가 실무팀을 만들어 첫 회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감찰관 추천, 법사위원장 교체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오고 가지 않았다. 박준상 기자 jooon@

## 국민의힘 "국민 빈곤 제로 만들겠다"

### 중위소득 하위 절반 기본소득 지원

국민의힘이 중위소득 하위 절반은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빈곤 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는 3개월간 활동을 종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힘으로! 미래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개의 과제가 담긴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적어도 가난 상태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경제혁신을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기준으로 빈곤 인구 전체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지원을 한다면 21조 원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표방한 목표가 빈곤 제로"라면서 "중위소득 50% 아래 국민이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

곤선(중위소득의 50%)에서의 1인 가구 소득은 월 88만 원으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의 소득을 채워 주자는 의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LTV 기준을 낮추며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함께하는 경제' 분야에는 △소득지원체계 전면 개편 △교육 체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비정규직 환경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총 6가지 내용을 담았다.

'역동적 경제' 분야에선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규제가 신사업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한국은 지금(규제로) 꽂혀 있다"며 "이런 형태에서 정부가 돈을 집어넣고 재정으로 산업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재정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몇몇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박준상 기자 jooon@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 BRAVO

Monthly Magazine

## My Life

2020. 09 Vol. 01

가을 환절기, 화로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

윤수영 모토쿼드 대표가 음미한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경지

추석스 18호는 가족 위해 가을 연두와 난리를 즐기며 오뎅 즐겨라

가을 환절기, 화로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

윤수영 모토쿼드 대표가 음미한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경지

추석스 18호는 가족 위해 가을 연두와 난리를 즐기며 오뎅 즐겨라

Your Song

### COVERSTORY 브라보! 음악에 차어스!

PART1.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종장년 음악문화 서베이 헤드라이는 변했어도 소프트한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알아보는 추억의 열성들

PART4. 음악에 반하다 신의 음조원 선율로 듣는다

PART5. 노래가 삶을 부를 때 인생 오선지 위 음표처럼 박힌 그때 그 노래

PART6.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장 들고 떠나는 감성여행

### 더불어 숲 내 마을에 구불 걷히면 부처가 보인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안녕, 시골야,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래 그때엔 그렇게 혼란한 인사말을 울을 거물이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 귀농한 김영웅(가) 씨. 그의 귀는 얼은 귀였나? 그는 "농지며 잠이며 가쳐 쓸 수 있으니 뭍만 오라는 자인의 달짝지근한 권유를 받고 설레어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다."

### 신라비가 만난 사랑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술

모터사이클은 명성과 같아... 새로운 세계로 떠려다준다

양평과 한방이 손잡고 걷는 '백화'에 이르는 길

배우 이경기, 에드워드터프셔 재연의 인생을 엿다

윤수영 모토쿼드 대표가 음미한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경지

최낙현 (사)대한중합협학회 이사장

### 김혜영의 느린 여행

#### 버려진 시골집의 재탄생 '규암리자은길'

백재고도 부여에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백제 유적이 밀고 밀려나고 있다. 한때는 관광 콘텐트가 없어 아쉬웠다. 2년 전 규암면 규암리 자은리에 '자은길 프로젝트'는 마을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 첫 단추가 독립서점 '책방세간'이었다. 호기심을 얻고 찾아간 시골 책방은 꽤 신선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다시 가겠다.

### 생생 부동산 현장 비규제지역에 가려진 '일파'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지역이 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아직 안전하다. 투자할 만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한양신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한양신도시의 잠재된 미래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왔다.

**엄마가 엄마에게**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육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농사**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늦추면 더 받는 '볼륨한' 국민연금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회계사**  
"복잡한 회계 업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무관리사**  
"사업에선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죠"

**세무사**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멘토**  
"시장 트렌드, 놓치지 마세요"

**헤드헌터**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사업, 참 어렵죠?  
지금 신한 SOL Biz  
다운받으면,  
모든 고민 걱정 끝!**

사업자를 위한 편리하고 쉬운 금융거래부터  
세무, 회계, 구인, 사업 노하우까지 -

돈든한 기업 बैं킹 앱  
**신한 SOL Biz**

지금 '신한 SOL Biz'  
다운로드 받으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 GET IT ON Google Play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고객까지 - 성공 지원 기업뱅킹앱**

**신한 SOL Biz**

- 모든 은행 계좌 및 카드를 모아보는 **통합 자금 관리**
- 스마트한 경영을 위한 **회계 관리**
- 간편한 절차로 세금 신고가 가능한 **세무 지원**
- 전문 인력 구인을 위한 **인력 채용**
- 비즈니스 정보 수집을 위한 **커뮤니티**

**SOL Biz**

\*신한 SOL Biz는 전은행계좌 및 카드 관리 / 세무지원 / 구인서비스 / SOHO 커뮤니티 연계 등 SOHO / 중소기업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बैं킹 플랫폼입니다

**EVENT 1 SOL Biz 금융 상품 신규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해당 상품** 쓸만한 사업자 대출 | 노란우산 공제 |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 | 사업자 성공기원 적금 (10만 원 이상)  
**경품** 1등 LG그램 노트북 | 2등 갤럭시 탭 | 3등 갤럭시 버즈플러스 | 4등 신세계 상품권 | 5등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증정

**EVENT 2 SOL Biz 로그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쿠폰 발송

\*본 이벤트는 2020.09.10 MMS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0-10962-1호 (2020.07.31~2020.12.31) \*당첨자는 2020년 9월 10일 이후 공지된 경로로 일괄 안내됩니다. (단, 공지일자는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품의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고, 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경품으로 바뀔 수 있으며, 경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재세공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당첨된 경품 상당금액이 고객님의 연간 기타 소득으로 한도하여 3백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될 수 있습니다. \*3만원 초과 경품제공 전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은행법상 계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단 금액형 상품권 (ex.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 금액권), 현금, 포인트는 금액 상한없이 보고됩니다. \*부정행위 방법으로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추첨 시 제외됩니다. \*당첨자에게 경품 지급을 위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기일 시 당행이 취소됩니다.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확인, 경품배송 및 재세공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대상은 SOL Biz 오온알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 SOL Biz 앱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 우드워드 “트럼프, 코로나 치명성 알고도 은폐”

### “독감보다 5배 위험 언급” 신간 ‘격노’서 폭로… 美 대선 새 변수 트럼프 “패닉 원치 않았다” 반박… 바이든 “국민에 거짓말” 맹공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사임을 촉발한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사진)가 신간 ‘격노(Rage)’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도 일부러 축소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격해질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못이 아니라 중국이 망할 바이러스를 보냈다”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퍼지자 트럼프는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미국의 치어리더이고 싶다. 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패닉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다.

우드워드는 9월 15일 출간하는 ‘격노’를 위해 2019년 말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트럼프를 인터뷰했고, 그의 허락 하에 녹음도 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고의적 은폐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고, 1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 점을 빌미로 공세에 나섰다. 야에 대선의 쟁점으로 끌고 갈 기세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경시했다”며 “더 나쁜 것은 미국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정보가 있었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며 “그는 자기 역할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의 생사를 건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백악관 측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케일리 매케네이 백악관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절대 바이러스를 과소 평가하지 않았다. 평온을 발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다.

최혜림 기자 rog@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한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는 1월 28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해 “이 정권에서 국가안보 보장 상 최대 위험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2월 7일 우드워드와 전화로 통화했을 때 트럼프는 “이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5배나 위험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로 코로나19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표된 건 2월 29일. 당시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그다지 확산하지 않은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는 “코로나19는 감기 수준이다. 미국인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다”고 경시했지만,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3월 19일에 진행한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위험을 경시하고 싶었다”며 “갑작스러운 혼란(panic)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에게 “오늘과 어제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나왔다”며 “나쁜 사람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감염 사례가) 많다”고 했다.

4월 인터뷰에서는 “너무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며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7월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와 상관이 없다”며 “내 잘



핏빛으로 물든金門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金門교 일대가 9일(현지시간) 오전 섬뜩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로 햇빛이 차단돼 아침인데도 붉은 노을 현상이 일어났다. 공기 악화와 정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연합뉴스

## “美·佛 관세전쟁 때문” vs “미래 안 보이니 발뺌”

# ‘메가딜’ 엮은 LVMH, 티파니와 진실공방

### 19.2兆 인수협상 무산 후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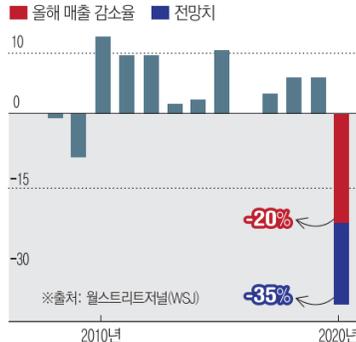
세계 최대 명품그룹인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가 미국 주얼리 업체인 티파니 인수를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162억 달러(약 19조2067억 원) 규모의 메가딜이 무산됐다. 그러나 거래가 무산된 이유를 두고 두 회사의 주장이 엇갈려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LVMH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결정한 티파니 인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LVMH는 “프랑스 외교부로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거래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자크 기오니 LVMH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프랑스 정부의 요구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으로 간주했다”며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려던 기존 인수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미국과 프랑스 간 관세 전쟁이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

### 2008~2020년 명품업계 매출 증감률 추이



월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에 ‘디지털세’ 3%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세란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따라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미국 정부는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프랑스산 화장품과 비누, 핸드백 등 사치품 13억 달러어치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양국 간 합의 여지가 있어 실제 관세 부과는 내년 1월 6일 이후로 명시했다.

하지만 티파니는 LVMH가 고의로 인수를 지연시켰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저 파라 티파니 회장은 “LVM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명품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니 받을 때를 기다려 프랑스 정부를 들먹인다”고 비난했다. 또 “LVMH가 인수를 끝내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며 “외무장관이 기업에 계약을 위반하도록 명령할 근거가 프랑스 법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공격했다.

파라 회장은 “(인수 지연) 요청을 받은 프랑스 기업의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티파니의 말대로 명품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 컨설팅 업체 베인에 따르면 올해 명품시장 매출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파니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LVMH를 제소하고 인수를 마무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양사 합의에 따르면 티파니가 거래를 깰 경우 5억7500만 달러의 해약금을 내야 하지만, LVMH에게는 배상 조건이 없다. 변호선 기자 hsbun@

## 아마존에 맞붙... 월마트도 ‘드론 배송’

### “전자상거래 강화”... 유통경쟁 후끈

유통 공룡 월마트가 드론 배송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자택에서 쇼핑하는 사람이 늘자 먼저 드론 배송을 시작한 아마존닷컴에 대항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월마트의 배송용 드론이 물품을 고객의 집 앞에 떨어뜨리는 모습. 월마트 동영상 캡처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피어렛빌의 매장에서 식료품과 가정용품의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월마트의 드론은 이스라엘의 플라이트렉스에서 개발한 것으로 최대 3kg까지 운반할 수 있다. 최대 비행 거리는 약 10km다.

월마트의 드론 배송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될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월마트+’의 일환이다. 월마트+는 98달러(11만6000원) 연회비를 내면 매장에서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스캔앤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아마존이 운영 중인 프리미엄 멤버십 프로그램 ‘아마존 프라임’에 맞서 월마트가 내놓은 야심작이다.

월마트까지 드론 배송에 뛰어들면서 아마존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마존은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

어’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았다. 2013년부터 배송용 드론 개발에 나선 아마존은 30분 이내에 고객의 집 앞으로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톰 워드 월마트 수석 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드론으로 수백만 개의 소포가 배달되는 장면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여전히 공상과학(SF)소설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사용 가능한 기술을 점차 개발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제어되는 드론은 물품을 받고 배송하기까지 고객과 직원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마트는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뛰어난 특수를 누렸다. 2021회계연도 1분기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소뱅 ‘나스닥 고래’ 책임자 나와!”

### 주주들, 손정의 거액 옵션거래 개입 의심 ‘정보공개’ 요구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에서 대규모 주식 옵션거래로 ‘나스닥 고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에 대해 주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거액 옵션거래로 글로벌 시장을 교란시킨 책임을 놓고 소프트뱅크 주주들이 회사에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도 설명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전략 변화에 최근 일주일 사이 주가는 약 10% 하락했다.

주주들은 지난달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공개했던 새로운 자산관리 사업부가 미국 기술주에 대한 대형 콜옵션 매입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FT가 지난해 주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매입 소식을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회사의 공격적 진출에 새 사업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지 의문이 고조됐다.

한 기관투자자 주주와 밀접한 관계자는 “이런 거래 활동 뒤에 진행되는 전략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누가 담당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려를 커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이 헤지펀드(새 자산관리 사업부)의 세부적인 관리에도 일일이 관여하는 것 같은 모습은 다소 황당하다”며 “그는 거대한 회사의 수장”이라고 꼬집었다.

FT가 소프트뱅크 지분을 보유한 몇몇 기관투자자들과 접촉한 결과 이들은 최근 콜옵션 파문이 터지기 전에도 새 자산관리 사업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상 경영 활동은 누가 책임지는지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주주들의 이런 시도에도 손정의 회장이 긴밀하게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 의외로 누가 책임자인지 밝히기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뱅크의 1000억 달러(약 119조 원) 규모 비전펀드 대표인 라지브 미스와 그의 측근이자 도이체방크 출신인 악샤이 나헤타가 미국 기술주에 대한 대형 콜옵션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바로 손 회장 자신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나헤타를 새 자산관리 사업부의 수장으로 지목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경영 개입이나 견제냐... 다시 불붙은 '노조추천이사제'

## 정치권 힘 받는 금융노조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네 번째 시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가 부정적인 기류에 동력을 잃자, 주주의 권리를 앞세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노동이사제와 전 단계 격인 노조가 인사를 추천하는 '노조추천이사제'는 차이가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주체가 노조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으로 구성원에 차이가 있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 2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앞두고 노조와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KB금융 입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견제를 위해 노조추천이사제가 필요하다는 노조와 경영권 개입 논란에 일컫는 금융산업 발전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다. 우리사주조합은 ESG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들이 사외이사 추천이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B금융은 지난 3월 이사회 안에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정치권 지원사격...금융권 촉각=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2017년 11월 임시주총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듬해와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진 못했다. 지난해엔 추천안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거대 여당과 전 노조위원장이 정계로 진출하는 등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민명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현직 금융노조 위원

###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현황

|       |       |                                   |
|-------|-------|-----------------------------------|
| 2017년 | 11월   | KB국민은행, 주주총회서 무산                  |
| 2019년 | 3월    | IBK기업은행,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             |
| 2020년 | 1월    |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
|       |       | IBK기업은행, 윤종원 행장과 노조, 도입 적극 추진 합의  |
|       | 2월    | KDB산업은행, 새노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도       |
|       | 8월    | 캠코,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최종후보 탈락           |
|       | 9월 1일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
|       | 10일   | KB금융 노조, 사외이사 2명 추천               |
|       | 11월   | 캠코, 사외이사 3명 임기 만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  |
| 2021년 | 2~3월  |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 임기만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

## KB금융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후보 2명 추천 '네 번째 도전' "경영 투명성 확보" vs "노사 갈등 이슈로 그룹 혁신 차질 우려" 전 노조위원장 정계 진출 등 국책銀·공기업까지 가세 움직임

장이 여당 최고위원이 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사회는 ESG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이사를 주주로서 추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힘써온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1월, 19년 만에 국민은행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앞세워 당선됐다. 민명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외이사 추천은 회사의 뉘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위원회 소속으로서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견제할 생각"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책銀·공기업, 속속 합류 바람= 금융권에선 박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힘을 빌려 각종 노동현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과 합을 맞춘 민주당 지도부도 친노조 성향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국회 정부위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인선 부평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

KB금융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과 한

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도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기업은행 노조다. 기업은행은 내년 2, 3월 각각 김정훈, 이승재 사외이사

의 임기가 만료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1년 전부터 목소리를 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올해 1월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을 반대하며 무려 27일 출근 저지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으로부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받고 농성을 끝냈다. 김 위원장은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노사 합의문을 도출해 냈고, 수출입은행과 캠코 등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내년 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좌절된 캠코도 다시 한번 도전한다. 오는 11월28일 안태환-정권영-임춘길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면서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혁신 저해, 노조 기득권만 강화=금융권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강성노조로 꼽히는 금융노조가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경영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조 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만큼 노사갈등 이슈를 이사회까지 끌어들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노조 추천 이사의 반대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꼽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로 가는 전 단계인 만큼 향후 노동이사제 논의로 불똥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로 인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 등 현재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이야기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미 은행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노조추천이사제를 은행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 기득권만 강화할 뿐 수익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국내 은행 노동기본권 측면에서 월급과 대우가 좋다"면서 "수익적 측면에서 글로벌 100대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큰 KB국민은행이 60위대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는 은행 노동조합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범근 기자 nova@·문수빈 기자 bean@

<7월>

## 은행대출 연체율 0.36%... 전월비 0.03%p ↑

### 신규 연체 발생액 2000억 감소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0.36%로 전월 말(0.33%)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월말(0.45%) 보다 0.10%p 하락한 수치다.

7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1조3000억 원)은 전월보다 2000억 원 감소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2조 원으로 7000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분기가 끝나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전월 대비 연체율이 소폭 오른다"며 "작년 대비 줄었고, 신규대출 또한 특이 동

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44%로 전월말 0.39% 대비 0.05%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59%) 대비 0.15%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29%) 대비 0.03%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7%)은 전월말과 유사했다. 전년 동월말(0.20%) 대비 0.03%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45%)은 전월말(0.42%) 대비 0.03%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49%) 대비 0.04%p 낮아졌다. 서지연 기자 sjy@

## 현대카드, 4500억 규모 원화 그린본드 발행

현대카드가 4500억 원 규모의 원화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린본드는 환경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에 쓰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이번 원화 그린본드는 1년2개월에서 10년 만기 채권으로 총 4500억 원 규모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은평 기자 pepe@

회생중소기업 사장님 - 절망은 NO 희망은 ON!

정부, 회생법원, 캠코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회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캠코의 촘촘한 재기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롬브라운 에디션 512GB〉

# 갤Z폴드2, 15일까지 사전예약...중국선 4분 만에 완판

갤Z플립5G와 18일 공식출시  
디스플레이 교체 시 70% 보상

중 모델, 韓 저장공간의 두 배  
55만~70만원 비싸도 '불티'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2' (사진)와 '갤럭시 Z 플립 5G'의 사전예약을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공식 출시는 18일이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전예약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15일부터 제품을 받고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 Z 폴드2'는 미스틱 브론즈·미스틱 블랙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239만 8000원이다. 미스틱 브론즈·미스틱 그레

이·미스틱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Z 플립 5G' 가격은 165만 원이다.

삼성전자는 사전예약 후 17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Z 폴드2'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파손·분실 보상, 서비스 보증 기간 연장, 방문 수리까지 가능한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SAMSUNG Care +)' 1년 권을 비롯해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 혹은 정품 케이스·무선충전 트리오·차량용 거치대로 구성된 '스페셜 케이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갤럭시 Z 플립 5G'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삼성 케어 플러스(SAMSUNG Care +)' 1년 권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 또는 무선 충전기·케이스·커스텀 스킨 등으로 구성된 '디즈니 콜라보 액세서리 패키지'



를 증정한다.

이 밖에 두 제품 사전예약 고객 공통으로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비용의 70%(1년 1회 한정) 보상 △방문 서비스(2회) △정품 보호필름 무료 부착(1년 1회) △프리

미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Z 프리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 보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중고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를 구매하고 기존 폰 반납 시 각 통신사 중고매입가의 최대 2배까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11일까지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는 '갤럭시 폴드 5G' 제품을 사용하던 고객이 기존 폰을 반납하고 '갤럭시 Z 폴드2 5G'를 구매할 경우, 100만 원을 정액 보상해주는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갤럭시Z폴드2 롬브라운 에디션 예약판매가 중국에서 단 4분 만에 끝났다.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8시 8분(현지시간)부터 삼성전자 중국 온라인 스토어, 알

리바바 티몰 등을 통해 갤럭시Z 폴드2와 갤럭시Z 폴드2 롬브라운 에디션을 각각 예약 판매했다. 추정 방식인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예약 구매를 먼저 한 고객에게 오는 25일부터 상품이 차례로 배송된다.

중국에서 갤럭시Z폴드2 롬브라운 에디션의 가격은 한국보다 70만 원 이상 비싼 2만7199위안(약 470만 원)에 달한다. 같은 날 예약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Z 폴드2 역시 한국 출고가(239만8000원)보다 55만 원가량 비싼 1만6999위안(약 295만 원)이다.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모델의 경우 내부 저장용량이 256GB(기가바이트)인데, 중국에서만 특이하게 512GB를 탑재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중국 소비자들이 높은 용량의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송영록 기자 syr@



## LG '차세대 배터리' 탑재 무인기 고도 22km 영하 70도 성층권 비행

'EAV-3' 국내 최고 고도 기록  
리튬-황 배터리 안정적 충·방전  
용량 1.5배에 저렴한 가격 장점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자사의 차세대 배터리를 활용한 무인기 비행 테스트가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흥 항공센터에서 'EAV-3' (사진)에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하고 오전 8시 36분부터 오후 9시 47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다. EAV-3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고고도 장기 체공 태양광 무인기다. 고도 12km 이상의 성층권에서 태양 에너지와 배터리로 날 수 있다. 날개 위 태양전지판으로 충전한다. 낮에는 태양 전지와 배터리 전력으로 비행하고 밤에는 낮에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으로 작동한다.

이번 비행에서 EAV-3은 22km 높이에서 비행하며 무인기 기준 국내 성층권 최고 고도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LG화학은 국내에서 리튬-황 배터리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영하 70도의 낮은 온도와 대기

압이 지상의 25분의 1 수준의 성층권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리튬-황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충·방전 됐다고 밝혔다. 리튬-황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다. 양극재에 황탄소 복합체, 음극재에 리튬 메탈 등 경량 재료를 사용해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보다 1.5배 이상 높다.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가격경쟁력도 높다.

LG화학은 앞으로 추가적인 리튬-황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해 수일 이상의 장기 체공 비행을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에너지 밀도를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 이상 높은 리튬-황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13시간의 비행 중 7시간을 일관 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고도 12~22km의 성층권에서 비행한 것도 성과다.

LG화학은 앞으로 추가적인 리튬-황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해 수일 이상의 장기 체공 비행을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에너지 밀도를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 이상 높은 리튬-황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삼성 오픈소스 콘퍼런스' 다음 달 온라인 개최

삼성전자가 다음 달 14일 '제7회 삼성 오픈소스 콘퍼런스(SOSCON)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 오픈소스 콘퍼런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픈소스 기반의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 오픈소스 콘퍼런스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삼성리서치 승현준 소장(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삼성리서치 최승범 전무가 '넥스트 노멀(Normal) 시대, 삼성전자 오픈소

스의 역할'에 대한 기조 연설에 나선다. 리눅스 재단 짐 켈민 의장과 기업 내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발·협업을 장려하는 재단 이너소스 커먼스 대니스 쿠퍼 의장, 글로벌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 '위민 후 코드' 서울팀 김수정 대표 등 업계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도 마련됐다. 이어 '삼성 주니어 SW 창작대회' 대상 수상자였던 정동윤 군(17세)과 황동현 군(14세)이 주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에 대해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 오픈소스 콘퍼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에쓰오일, 정유 적자·석유화학 섀다운 '이중고'

태풍에 온산공단 일부 정비  
한 달간 프로필렌 생산 차질  
하반기 실적 개선세 악영향

에쓰오일(S-OIL)의 중질유분해시설(RFCC)이 태풍의 영향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정유 부문의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피해로 석유화학 사업까지 차질이 예상되며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정유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단 내 있는 RFCC 2호기가 최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예기치 않게 섀다운(Shutdown)된 것으로 전해졌다.

RFCC는 하루 7만6000배럴의 저가 잔

사유를 처리해 고부가가치의 휘발유, 프로필렌으로 만드는 고도화 설비다.

에너지 가격평가업체 아거스미디어(Argus Media)는 "섀다운은 약 한 달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시장조사기관인 플라츠(Platts) 역시 비슷한 기간 에쓰오일의 RFCC 시설의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일부 휘발유 시설에 정비 보수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RFCC에 문제가 생긴 것이 맞다면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에쓰오일은 값싼 병커C유를 전환해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프로필렌(PP) 산화프로필렌(PO)을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평소엔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 원료인 프로필렌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다운스트림인 PP와 PO 생산도 잇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구조다. 에쓰오일의 PP 생산능력은 연간 40만 톤, PO는 30만 톤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상반기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흑자 전환을 기대하던 에쓰오일의 실적 개선세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유기업에서 종합 석유화학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며 석유화학 사업을 강화한 에쓰오일은 올해 들어 유가 급락에 따른 손실, 코로나19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감소 등으로 정유 부문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할 때도 석유화학 부문이 견조한 수익성을 보이며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이번 섀다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초고화질 마이크로 사이니지 출시 LG전자는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MAGNIT(시리즈명 LSAB)'를 10일 국내와 아시아,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는 초소형 LED 소자를 직접 화면 기판에 부착한 자발광(自發光)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LED 소자를 패키징(Packaging)한 후 기판에 붙이는 기존 LED 사이니지보다 한층 진화된 기술로, 밝고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 등이 장점이다. 사진제공 LG전자

## SK이노 손잡은 소셜벤처 'SOVAC 어벤저스' 결성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가 국내 최대 사회적 가치 민간 축제인 'SOVAC 2020'에 참여한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자사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11개사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SOVAC 어벤저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곳에 참여한 회사는 △전주비빔빵 △모어덴 △우시산 △그레이프랩 △소무나 △몽세누 △이노마드 △마린노베이션 △오투엠 △인진 △맹그러브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SOVAC 2020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지식·솔루션을 연결하는 강연,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사를 비롯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주요 ICT 기업이 총출동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법조계, 인플루언서까지 참여하는 등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SOVAC 어벤저스'는 SOVAC이 추구하는 가치의 주인공격인 사회적기업들이 이를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삼고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통해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들은 강연 등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사회적 가치 토론의 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LIFEPLUS 모델 악동뮤지션

# 딱, 30살까지만 들어오세요

보험에도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니 보험료 부담 없이,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할 수 있는  
 보험을 만나고 싶다면  
 30세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한  
 LIFEPLUS 어른이보험을 놓치지 마세요

30세가 넘으면 들고 싶어도 못 드는 보험  
**LIFEPLUS 어른이보험 무배당**

상담문의 080.365.6363

LIFEPLUS 어른이보험 무배당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 3법, 기업 투자 확대 흐름에 역행...재고해야”

## 산업계 26개 단체 포럼

산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법안에 위한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를)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

## “상법 개정안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주주 평등 위배” “전문경영인 일탈 막아 기업 가치 높여” 일부 반론 제기 공정거래법도 부작용 우려...단체임원들 국회 찾아 호소

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등의 합산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송원근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는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주주의 결권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총 발행주식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주주 평등의 원칙(1주 1의 결권)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사가 지분을 확보해 특정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뒤 정보를 빼가는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 대규모 상장 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37.7%인데, ‘3%룰’을 적용하면 외부자본의 지주회사 공격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엘리트 펀드는 현대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인사(발라드퍼워시스템 회장)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3%룰에 따르면 현대차가 이를 방어할 여력이 제한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역시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비상장 회사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K홀딩스(모회사)가 제주항공(자회사) 지분 53.3%를 갖고 있는데, 과연 두 회사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국내 여러 기업집단이 소송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정부가 상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이어갔다. 먼저,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현재 30%(상장사)로 제한된 총수입가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제한을 20%로 낮추려는 시도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지분을

이 높은 자회사는 사실상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로, 이들 계열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찰담합과 가격담합 등 이른바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반론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법은 전문경영인의 일탈을 막아주는 제도”라며 “대주주로서는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등 단체 임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 3법에 대한 개·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 타보니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



## 뺏을수록 ‘휘파람’ 고성능 GT 탄생 (그랜드 투어러)

### 2.0터보 엔진, 2.5터보로 교체 하위 트림도 ‘파워 업그레이드’

데뷔 3년여 만에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으로 거듭난 스팅어는 변화의 초점을 엔진에 뒀다.

출시 당시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터보 △V6 3.3 트윈 터보 등 3가지였던 엔진에서 디젤을 걷어냈다. 그리고 2.0 터보 대신 2.5 터보를 새로 얹었고, 최고봉인 V6 3.3 트윈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을 365마력에서 373마력으로 살짝 끌어올렸다.

새 모델은 부분변경 때마다 앞뒤 모습을 회관하게 뜯어고치는 현대·기아차의 제품전략에서도 벗어났다. 더는 고쳐볼 수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은 소폭의 변화만 허락했다.

엔론을 대상으로 한 시승행사 역시 변화의 초점인 2.5 터보에 집중했다.

앞모습은 헤드램프의 주간주행등의 세부 형상을 바꾼 게 유일한 변화다. 뒷모습도 이전 실루엣을 유지한 채 후미등 내부 형상에 변화를 줬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 ‘마세라티’를 빼앗았던 후미등은 좌우를 하나의 LED 램프로 연결해 기아차의 패밀리 룩에 합류했다.

차 길이는 아랫급 K7을 물론 중형세단 K5보다도 7.6cm가 짧다. 반대로 높이는 K5보다 4.5cm가 낮고, 너비는 무려 24cm나 넓어 한결 안정감이 있다.

9일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에서 약 50

km를 달렸다. 출발은 꽤 경쾌하다. 다만 차고 넘치는 최고출력을 억지로 억제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밀려온다.

새 엔진은 배기량을 500cc 늘리면서 스트로크를 늘렸다. 이전과 똑같은 엔진이지만 엔진 피스톤의 위아래 운동범위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엔진이 바뀌면 저속에서 유능한 힘을 낼 수 있다. 거꾸로 고회전으로 올라갈수록 기존의 2.0 터보 엔진보다 회전 질감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전보다 배기량과 최고출력이 크게 향상했음에도 앞뒤 균형은 여전히 완벽에 가깝다. 이미 V6 3.3 트윈 터보까지 견딜 만큼 균형 잡힌 서스펜션 덕에 2.5 터보 엔진 역시 뛰어난 조화를 이룬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서면 마음먹은 대로 차를 움직일 수 있다.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눈에 보이는 빈자리에 차를 평평 던져 넣을 수 있다. 차선변경→가속→추월→복귀를 반복할 때마다 모든 동작이 매끄럽고 우아하게 이어진다.

손과 발에 스팅어가 익숙해지면서 슬며시 ‘한 때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물밀 듯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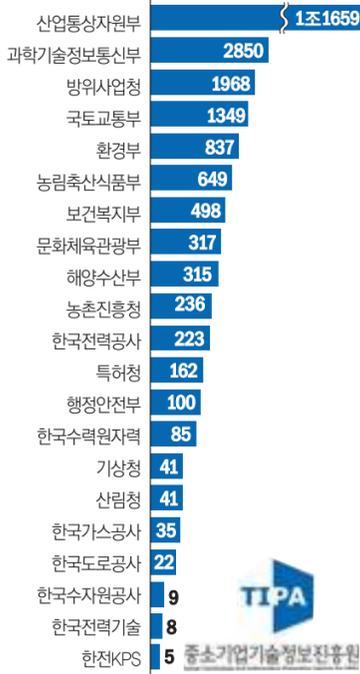
스텅어는 기아차의 K시리즈 세단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준대형 세단 K7과 대형 플래그십 K9 사이에 존재하는 세단을 찾았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길. 고성능 GT의 매력과 가치를 충분히 아는, 그래서 스팅어의 진정한 가치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이에게 어울린다.

김준형 기자 junior@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KOSBIR 주관부처 중기부, 뒤늦게 대상기관된 까닭

**기관별 KOSBIR 지원실적**  
(단위: 억 원, 2019년 기준)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미국 제도 벤치마킹해 만들어 그동안 대상기관에서 제외시켜 중기부가 직접 R&D 지원하는 국내 현실 맞게 올해부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청 일 당시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에서 정작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대상 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KOSBIR 지원 실적에 중기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이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1998년 도입돼 권고제로 운영되다가 2013년 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 의무제로 전환됐다. KOSBIR 제도 적용 대상은 R&D 예산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공공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KOSBIR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21개 기관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총 실적은 2조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조1400억 원은 21개 기관 R&D 예산의 11.9% 수준이다. 2018년에 전체 기관의 KOSBIR 실적은 2조1000억 원, 2017년에는 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R&D 전체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2.8%, 2018년 12.5%로 2019년까지 매해 줄어 들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이 가장 크게 집계된 곳은 산자부로 1조165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과기부 2850억 원 △방위사업청 1968억 원 △국토교통부 1349억 원 △환경부 837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4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2017년 중기부로 승격됐는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KOSBIR)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이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 적용 대상은 R&D 예산 300억 원 이상인 정부·공공기관이다.

도 지난해까지 KOSBIR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중기부는 "미국의 SBIR제도를 벤치마킹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SBIR 제도는 연방정부 기관 중 연간 연구 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은 3.2%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국의 중기부와 달리 SBIR을 주관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R&D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총괄·감독만 한다.

미국의 중기청과 달리 한국 중기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직접 한다. KOSBIR

대상 기관에 중기부가 포함되지 않은 게 부적절한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부터 실적 집계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중기부가 추가되면서 올해 대상 기관은 총 22개가 된 셈이다.

중기부는 올해 KOSBIR 실적으로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다. R&D 지원의 전체 예산은 1조5000억 원이나 이 중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만이 인정되며,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 등이 제외돼 전체 예산의 80.3%가 KOSBIR 실적으로 잡혀 있다.

중기부 산하 기정원은 KOSBIR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정원은 지난달 말 'KOSBIR 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형식적으로 시행되던 KOSBIR 제도를 개선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정원은 KOSBIR 제도의 현황 조사·분석 및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실정을 고려한 벤치마킹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재민 기자 aaaa3469@

## 대전·천안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든다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스타트업파크가 조성된다.

11일 중소기업부(중기부)는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성 지역으로 단독형에는 대전광역시, 복합형에는 충남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다. 스타트업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에프(Station-F)처럼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이다. 지난해에는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파크' 조성 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 중기부는 스타트업파크 조성 컨셉을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나누어 각 1개씩 선정을 추진했다. 단독형은 현재 네트워킹 및 주거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혁신창업 거점으로서 기능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곳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복합형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런던 킹스크로스 모델을 삼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업 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

## 창업벤처 요람 '스타트업 파크' 대전, 유성구 공동 일대에 조성 천안, 철도역사 중심 타운 건설 설계·조성비 등 125억씩 지원

복지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중기부는 6월 11일 사업을 공고해 9개 지자체가 단독형에, 3개 지자체가 복합형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종 발표평가 시에는 창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언론인 2명을 추가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평가위원들이 모든 현장을 먼저 확인한 뒤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현장 확인 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합한 종합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지자체에 대해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체계를 운영했다.

단독형에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충남 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유성구 공동 일대를 스타트업파크로 조성할 계획

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 충남대 업 및 네트워킹 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다수 위원들이 평가했다.

복합형에 선정된 충남 천안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천안 역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나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후보지 주변에 밀집된 대학, 투자기관, 대학 등 혁신 주체와 창업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 유입이나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돼 신속하게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된 지역들에는 올해 설계비 각 5억 원씩이 지원된다. 내년에는 스타트업파크 조성비 120억 원 내외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합형인 천안시에는 내년에도 복합허브 구축비 140억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스타트업파크가 창업 혁신 거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민 기자 aaaa3469@

## 카카오프렌즈, 상하이에 중국 1호 매장

내일 공식 오픈... 관광·쇼핑명소 '난징동루'에 위치

카카오IX는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가 오는 12일 중국 상하이에 첫 번째 매장을 공식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중국 상하이점은 총 2층 규모로 상하이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난징동루 보행자거리에 위치해 있다. 난징동루는 현지인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지역 내 손꼽히는 관광·쇼핑 명소다. 카카오프렌즈는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프렌즈를 알리고자 이 곳에 중국 1호 매장을 열게 됐다.

카카오프렌즈 상하이점은 '원 신 원 임팩트'를 콘셉트로 중국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공간으로 선보인다.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골드 색상과 카카오프렌즈의 상징인 노란색을 조화롭게 사용했으며, 천장에 대형 황금 라인 미러볼을 설치해 상하이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을 선사한다.

또 미러볼 아래쪽에 '아이 러브 상하이'를 주제로 존을 조성했으며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을 전시, 고객들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천장과 벽면에 반사 소재를 사용해 공간이 보다 확



장된 듯한 착시 효과를 제공한다. 카카오프렌즈는 상하이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상품도 출시한다. 중국을 대표하는 붉은색과 와이탄, 동방명주, 엑스포 등 상하이 대표 명소 및 샤오롱바오, 성지엔 등 상하이 대표 음식을 캐릭터와 결합시켰다. 인형, 쿠션, 키링 등 카카오프렌즈 핵심 아이템 외에 머그컵, 마그넷, 예코백, 데코 스티커 등 상하이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준석 카카오IX 중국 법인장은 "상하이 스토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프렌즈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코웨이, 9월 한 달간 공기청정기 렌탈료 할인

대표제품 9종, 신규 렌탈시 매월 최대 4000원 혜택

코웨이가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공기청정기 신규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렌탈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추석 명절과 본격적인 가을 시즌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코웨이의 혁신 필터 기술력과 맞춤형 공기질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아이콘 공기청정기', '멀티액션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코웨이 공기청정기 대표 제품 9종(AP-1018F, AP-1717A, AP-3018B, AP-1019D,

AP-1519M, AP-0818A, AP-1220F, AP-1519B, AP-3519A)이다.

이달 말까지 해당 제품 신규 렌탈 시, 매월 최대 4000원의 렌탈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 아이콘 공기청정기(AP-1019D)는 고급스러운 리얼 패브릭 커버 디자인을 갖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에 맞춤형 에어매핑필터를 더한 4단계 필터 시스템을 장착해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케어한다.



코웨이 아이콘 공기청정기.

김경훈 코웨이 판매정책운영팀장은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혁신 필터 기술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건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기자 aaaa3469@

## 펠어비스 '검은사막 IP' 누적 매출 2兆 돌파

해외매출 74%... 꾸준한 성장세

펠어비스는 '검은사막 IP'의 누적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창립 10주년이자 '검은사막' 출시 5년 만에 달성했다. 펠어비스는 2010년 9월 10일 창업해 당시 모바일 게임 붐에도 불구하고 PC 온라인 게임 개발에 매진해 4년 만에 검은사막을 출시했다.

검은사막은 모바일과 콘솔 등 플랫폼 다변화로 성공했다. 현재 150여개국 약 4000만명이 즐기는 글로벌 대표 게임 IP로 성장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2018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6관왕을 거뒀으며 2019년 12월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했다. 검은사막 콘솔

은 2019년 Xbox와 PS4로 출시해 '크로스 플레이' 시스템을 선보이며 글로벌 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검은사막 IP의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은 74%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정적인 글로벌 서비스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북미·유럽 지역 40%, 대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34%, 한국 26% 차지하고 있다.

정경인 펠어비스 대표는 "펠어비스는 모든 플랫폼에서 성공한 몇 안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함께 한 동료들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최고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반려식물 판매·드라이브스루... 편의점의 '무한 변신'

## 코로나19 시대 진화하는 업계

코로나19 시대 일상의 중심이 집 주변으로 옮겨지며 '집 앞' 편의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편의점이 취급 품목과 서비스를 강화하며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심야 배달 수요 증가에 발맞춰 '24시간 배달 매장'을 늘리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계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GS25는 한국화훼농협과 손잡고 흠가드닝(가정원예) 용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코로나 블루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반려식물'에 몰리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반려식물 입문자를 위한 흠가드닝 용품을 신상품으로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25가 이번에 출시한 흠가드닝 용품은 △적상추 씨앗 △비질 씨앗 △레몬밤 씨앗 △방울토마토 씨앗 등 관리가 쉽고 식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품종의 씨앗 4종과 △배양토 △화분 및 화분 받침대 △영양제 △압축 분무기 등을 포함한 총 15종이다.

GS25는 고객의 구매 편의성을 고려해 흠



GS25

## 화훼농협과 흠가드닝 용품 출시 씨앗·배양토 등 전용 매대 운영

가드닝 용품 15종을 한데 모아 흠가드닝 전용 매대로 운영한다. 씨앗은 각각 2000원, 이외 배양토, 모종삽, 화분, 영양제, 압축 분무기 등은 2500~8500원대로 구성했다.

GS25는 1차 물량으로 준비한 500개의 흠가드닝 전용 매대를 주요 오피스, 주택가 상권의 GS25를 통해 8일 처음으로 선보였고, 올해 연말까지 전국 GS25로 확대할 방침이다.

CU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편의점 드라이브 스루'를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 모빌리티 플랫폼 '오원(OWIN)'과 손잡고



CU

## 모바일 플랫폼 '오원'과 업무협약 차량 상품 픽업 서비스 곧 시작

업계 최초로 자동차 안에서 편의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CU 차량 픽업 서비스' 개발에 나선 것.

오원은 운전자 주유 결제, 주차권 예약, 식음료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CU와 제휴를 맺고 편의점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개발하는 CU 차량 픽업 서비스는 상품을 사전에 주문한 고객이 점포 앞에 차를 정차하면 근무자가 차량 창문을 통해 물건을 전달해주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이마트24

## 2년 전부터 알뜰폰 유심 판매 가성비 전용 요금제 3종 출시

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과 근무자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드라이브 스루 주문은 오프라인 주문, 결제, 수령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시간이 발생한다. 반면 CU 차량 픽업 서비스는 점포 도착 전에 미리 오원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마치기 때문에 대면 접촉과 구매 시간을 이보다 더 줄일 수 있다.

CU는 POS(결제 단말기)와 고객 간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을 개발해 주문한 고객의 도착 예정시간을 점포에 제공해 근무자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객 역시 점포에

도착하지마자 상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이마트24는 알뜰폰 가입 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알뜰폰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알뜰폰 업체인 LG 헬로비전 헬로모바일과 손잡고 전용요금제 3종을 이날 출시했다.

이마트24는 2018년 매장에 최초로 알뜰폰 전용 유심 매대를 설치하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출시하는 전용요금제 3종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을 위한 '이마트24 안심 유심 11GB (3만3000원) △실속형 '이마트24 유심 7GB 180분 (1만7900원) △초절약형 데이터 안심 상품 '이마트24 안심 유심 500MB 50분 (7920원)'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매장 방문 없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휴대폰을 빠르게 개봉할 수 있게 됐다.

가까운 이마트24 매장에 들러 헬로모바일 전용 유심을 구매한 뒤 헬로모바일 데이터팩에 접속하면 단 '5분' 안에 셀프 개봉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마트24는 전국에 50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기업 한섬은 24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 열린광장에서 한섬의 주요 액세서리를 한곳에 모은 '더 한섬하우스 콜렉티브' 팝업 매장을 운영하고 10일 밝혔다. 이번 팝업 매장에는 타임·마인·레트 바이 티·시스템·SJSJ 등 한섬의 5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각 브랜드의 정체성이 담긴 가방·신발·모자 등 총 150여 종의 액세서리 제품으로 구성된다. 사진제공 한섬

## 온라인쇼핑 "주문내역 공개, 사생활 침해"

### 금융위 2차 회의 '보이콧'

### "예고 없이 신용정보법에 포함 위임 범위 등 시행령 개정해야"

온라인쇼핑업계가 금융당국의 '주문 내역 정보' 공개 추진에 "일방통행"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사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온라인쇼핑업계는 개인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금융위원회 주관 회의에 아예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오전 10시 열기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자상거래기업 등이 불참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에 금융사와 빅테크·전자상거래기업 등이 참석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1차 회의를 개최해 입법예고 때 없던 '주문내역정보'를 포함시키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어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주문내역 정보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과 주문내역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협회는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고도 없이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1차 회의와 설명서를 통해 수차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날 회의 소집 계획안에도 논의의 주제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과 그 범주에 국한됐고, 주장해온 삭제 관련 논의는 아예 없었다고 반발했다.

온라인쇼핑업계의 보이콧은 금융위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지난달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 범위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된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고객 동의 하에 온라인 사업체들로부터 고객이 언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 관련 정보라고 주장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2조)'가 포함되는데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기간·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융사들도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주문내역 정보 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과 비금융 신용정보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온라인쇼핑업체들은 주문 내역 정보는 고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라고 반발한다. 아울러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음식을 시켜먹는지도 그 사람의 신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 금과일·금채소, 알뜰 구매 '꿀팁'

### 이마트, 못난이 사과·배 판매 현대백 '착한소비' 할인 행사 NS홈쇼핑, 농식품대전 생방송

긴 장마와 태풍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돕고, 시세가 급등한 과일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유통업계가 팔을 걷고 나섰다.

10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원형·상품·15kg 기준)의 8일자 도매시세는 4만6160원으로 전년보다 44.3%, 평년보다도 27.7% 올랐다. 사과(홍로·상품·10kg 기준) 역시 8일자 도매시세는 6만6940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1% 올랐고, 평년 대비해서도 약 56.8%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이유가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8월 사과와 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15.3% 줄었다. 여기에 부족한 일조량과 장기간 강우 영향에 과실 크기가 작고, 낙과 피해까지 발생해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실의에 빠진 농가를 돕고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유통업계가 나섰다. 이마트는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작은 흠집이 있어 '못난이'로 불리는 사과(300t)와 배(60t)를 저렴하게 판다. 이 과일들을 모양만 다른 사과 13브릭스(brix), 배 11브릭스 이상으로 맛은 일반 상품과 동일하다. 가격은 사과와 배의 경우 헷사과보다 약 25% 저렴하고, 알뜰배는 햇배의 절반 수준이다.

이마트는 이달 초 최상품부터 못난이까지 수확 물량 전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폴세트 매입'으로 사과를 확보했고, 알뜰배는 담당 바이어가 20곳의 농가를 직접 방문해 수확 현장에서 직접 사들였다.

세븐일레븐도 6월 경남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우박 맞은 사과'를 출시했다. 우박 피해로 겉 표면에 경미한 흠집이 있지만 맛과 크기 등 품질에는 하자가 없다. 14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사과만을 엄선한 이 상품은 2kg에 4900원으로 일반 시세가 대비 4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학

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한 '함께해요, 착한 소비' 할인 행사를 연다. 행사에서는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을 받은 농산물 6종(감자·당근·양파·참고구마·배·사인머스켓)을 20% 할인 판매한다. 판매 물량은 약 10톤 규모다.

쿠팡 역시 판로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27일까지 'A팍마켓 기획전'을 실시한다. 전국 47개 지역 농산물 업체의 160여개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겉질째 먹는 유기농 생알로에부터 무농약 돌배, 생표고버섯, 숙성 쌀갈 등이다.

NS홈쇼핑은 우수 농식품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11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195분간 '2020 온라인경북농식품산업대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다. GS프리세들도 네이버 쇼핑 푸드윈도 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우수 농·수·축가 생산자들의 산지 직송 상품을 확대 취급해 농가 살리기에 나선다. 직매입 방식으로 판매해 당일배송과 새벽배송도 가능하다.

남주현 기자 jooH@

## 인삼공사 "올 추석,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 내달 5일까지 '선물세트' 행사

올해 추석 선물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보다 면역력과 건강 관련 선물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KGC인삼공사의 정관장은 추석 선물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올 추석만큼은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답이' 행사를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20종의 선물세트(다보죽)를 비롯해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홍삼 달임액 △화애라 △홍천웅 △천복 등 인기 제품에 대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다.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얼리버드 소비자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홍삼정을 비롯한 '건강 BEST 10' 제품 구매시, 정관장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언택트 선물을 선호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건강식품 전문몰인 '정관장몰(정몰)'을 통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장 픽업 서비스'를 통해 정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매장에서 픽업할 수도 있다.

정관장은 물류센터에 UV케어시스템을 설치,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모든 제품에 자외선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관장 매장에서는 아크릴 비말차단막과 손잡이 향균시트 등 고객보호시설물을 설치하고 일일방역 시스템을 갖췄다. KGC인삼공사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추석에는 비대면 구매 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빅히트 상장 '낙수효과'... '빅3 엔터' 주가도 펄펄

빅히트 증권신고서 제출 후  
'YJ엔터' 14.23% 치솟아  
'JYP' 8.33% 'SM' 1.85% ↑  
"엔터업계 전반 재평가 계기"  
빅3 시총 모두 1兆 돌파 기대감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JYP는 3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계획돼 있다"며 "콘서트 부재에 따른 매출 하락을 방어하며 수익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성준원 연구원은 "와이지엔터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에서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쉽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의 컴백, 신인 그룹 트레저의 데뷔, 기존 아티스트 등을 통한 음원·음반 수익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향후 온라인 콘서트 등을 통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스엠은 3분기(7~9월) EXO(엑소) 카이솔로, 샤이니 태민 컴백, 슈퍼엠 앨범 컴백 등 전 분기에 이어 주력 아티스트들의 연이은 컴백이 예정돼 있다"며 "보이그룹 중심의 단단한 팬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반과 온라인 공연 실희 현상에 있어 SM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상장 후 이 회사의 경쟁사인 '엔터 3사'(JYP, YG, SM)의 주가가 덩달아 뛰고 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2주 연속 '핫 100'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빅히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일부터 제이와이엔터테인먼트(JYP Ent) (8.3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4.23%), 에스엠(1.85%)이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공연 등이 줄줄이 취소되며 내리막길을 걸었던 빅3의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우선 JYP는 7월 약 1년 2개월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했다. 시가총액은 이날 증가 기준 1조4412억 원으로 늘어났다. 와이지 역시 시가총액도 이날 기준 1조567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주가 상승세가 다소 약했던 에스엠도 8일에 52주 신고가에 도달하는 등 이날 시가총액은 8899억 원이다.

지금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처음으로 빅3의 시가총액이 모두 1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는 빅히트 상장 후 엔터업계 전반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빅3' 엔터주들도 온기가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에 K팝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빅3에게도 호재다. 이들 역시 글로벌 팬덤을 지닌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 후 빅히트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지금 빅3의 주가는 빅히트 상장 초기까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빅히트 상장 기대뿐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에서 선방하는 업종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수익원이었던 오프라인 공연은 어려워도 음원·음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온라인 콘서트 같은 돌파구와 주요 아티스트 컴백으로 엔터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대장주의 귀환... 삼성전자 장중 6만원 '터치'

3Q 영업익 10조 돌파 기대감  
KB증권 목표가 8만원으로 상향  
동학개미, 올 들어 8兆 순매수



'대장주' 삼성전자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 기대를 모으면서 주가도 장 중 6만 원을 '터치'했다.

10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3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2.74% 오른 6만 원을 장 중 기록하기도 했다. 주가 맨 앞자리가 6으로 바뀐 것은 지난 7월 30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연이은 주주 낭보로 '동학개미'를 설레게 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8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켈컴의 5G칩 파운드리 주주까지 따냈다. 개인 투자자는 올 들어 삼성전자를 8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잇단 주수와 대외 환경 변화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눈높이도 높아져 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기준 증권사들이 예측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8885억 원이다. 지난달까지 9조 원 정도로 예상되던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만큼 올라온 것이다.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 증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하나금융투자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처음 예측했다. 그리고 이달 들어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10조 원 예측 대열에 합류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실적을 거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매출의 기여도가 큰 D램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 변화로 스마트폰 사업의 선전 가능성도 커졌다. 또 미국이 중국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제재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사수혜 기대도 커졌다. 스마트폰·TV 출하량 증가 기대는 디스플레이에 호재다.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8만 원을 넘어갈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이날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은 화웨이 반사이익과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로 2018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상된다"며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삼성전자는 단기적 주춤을 겪을 수 있으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우선, 무선에서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조활동은 정상화 된 가운데, 판매활동이 온라인 위주로 변화하며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3분기 스마트폰 판매는 8000만 대 수준으로 2분기 5000만 대 수준에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車부품·유통·호텔·정유 업종 코로나發 '신용 강등' 적신호

한신평 "실적·재무안정성 저하, 하반기 하방 압력 커질 것"

자동차와 부품, 호텔·면세, 유통, 정유, 항공 업종에 신용등급 '강등' 경고등이 켜졌다.

10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코로나19 사태의 한 가운데 드러난 실적과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연 웹 세미나에서 자동차·부품, 유통, 호텔·면세, 정유, 상영관 등에 속한 기업의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단기 전망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안정성도 흔들리고 있다. 6월 말 현재 전년 말 보다 순차입금 규모가 늘어난 업종은 자동차부품(6조3091억 원→6조9801억 원) △정유(21조4576억 원→25조4775억 원), 호텔면세(7조8844억 원→9조4506억 원) 항공(23조251억 원→25조176억 원), 상영관(3조1307억 원→3조5459억 원) 등이다.

권기혁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감염 재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 증대와 글로벌 및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하반기도 2분기 실적 수준에서 큰 폭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신평은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재무부담 변동과 기업신용 전망



현대·기아차, 한은시스템, 만도 등에 대해 3분기 실적 확인 후 신용도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CJ CGV, 메가박스중앙 등 상영관 업체와 항공업종 소속 기업도 검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유건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본부장은 "상반기에는 등급의 즉각적 하향보다는 등급 전망, 관찰대상 등록을 통해 등급의 방향성을 예고했다"며 "그러나 실적 방향성이 명확하고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기업은 하반기 정기평가에서 신용 등급 하방 압력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증권가 "한국의 텐센트게임즈, 더 오를 것"

카카오게임즈 상장 첫날 '따상'

▶1면서 계속

증권가 예상 목표 주가도 하루 만에 넘어섰다. 대신증권 3만3000원, 메리츠증권 3만2000원, KTB투자증권 2만8000원 등이다.

이날 흥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공모가가 시장 예상보다 낮은 평가가 많았고, '한국의 텐센트게임즈'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증시 개장을 앞두고 '따상'을 하더라도 그 가격에 주식을 사려고 준비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카카오톡 대화방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티 등에는 "개장과 동시에 광클했는데 한 주도 못 받았다. 가족이 모두 나섰는데..." 등 아쉬움을 토로하는 투자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돈이 많다고 원하는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 장 마감 기준 상한가에 주식을 사겠다는 대기 물량은 2756만 주에 달했다. 1조7197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물린 것이다. 반면 이날 하루 동안 거래된 주식 수는 약 50만 주로, 유통 가능한 주식의 2.1%에 불과해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추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진만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

에 대해 "한국의 텐센트게임즈가 될 수 있는 유력 후보"라며 "시장 분위기와 상장 초기 종목 변동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출시작 가디언테일즈의 기대 이상의 성과와 출시를 앞둔 엘리온, 오딘 등의 대형 신작 성과로 단기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PC와 모바일 사업 역량을 갖춘 대표 게임사로 영업이익 성장세는 하반기에 가팔라질 것"이라면서도 적정 기업가치는 2조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회사 임직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1인당 약 5억3000만 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얻게 됐다. 스톡옵션은 총 482만2164주(최소 수량 제외)이며, 행사 가격은 5095~1만7912원, 평균 행사가격은 1만1361원이다.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9월 10일 17:00, KST)

8,705,733 (4월) → 11,202,484 (5월) → 11,347,033 (6월) → 11,344,613 (7월) → 13,699,548 (8월) → 12,225,000원 (9월 10일)

전일 대비  
111,000원  
(0.9%▲)

6개월 대비  
3,727,677원  
(43.9%▲)

전일 대비  
206,773  
(6.3%▲)

6개월 대비  
234,390원  
(118.2%▲)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268,000 | 100 (-)        | 이오스     | 3,284  | -4 (0.1%▼)  |
| 리플     | 290     | 5 (1.8%▲)      | 비트코인골드  | 10,020 | -10 (0.1%▼) |
| 라이트코인  | 57,600  | 800 (1.4%▲)    | 이더리움클래식 | 7,205  | 130 (1.8%▲) |
| 대시     | 89,500  | -1,700 (1.9%▼) | 퀀텀      | 2,928  | 88 (3.1%▲)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철거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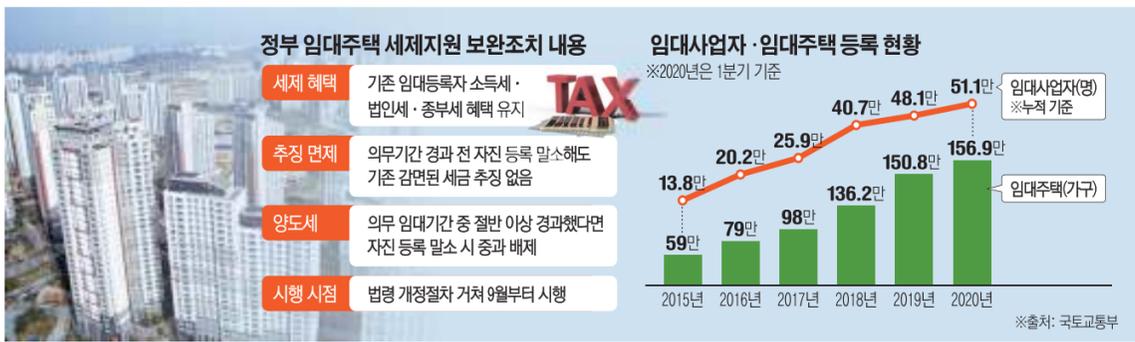
# “멸실 땀 세금폭탄” 재개발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잇단 보완에 누더기 된 임대주택 세제 아파트 임대사업 재등록 못하게 돼 임대 의무 못채워 비과세 혜택 박탈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논란에 보완책을 잇따라 내놓았는데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임대로 놓은 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기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임대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법 적용에 나선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홈페이지 게시물에는 15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법령 개정안에 수백 개의 댓글이



글이 게재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댓글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내놓은 임대사업자들이 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등록한 집이 정비사업으로 멸실(철거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더라도 주택 준공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위한 임대 의무기간(4년·8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난달 폐지되면서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도 채울 수 없게 됐고,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멸실로 인해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내지 않아도 될 양도세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판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 김 모씨는 “2001년 샀던 집을 팔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고, 그 사이 조합 설립이 됐다”며 “신축 아파트로 완공될 때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임대 의무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혜택을 못받아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과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세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

치’를 발표하며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이 모씨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완 조치로 혜택을 주면서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 직권말소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멸실·신축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국세청을 믿고 임대등록했는데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불만이 쇄도하고 있지만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와 관련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www.douzone.com

DOUZONE

##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을지타워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DEWS 개발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종합체험공간 DTEC



전문 컨설팅팀 그룹이 집중 지원하는 FoEX 구축방법



국제 기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CMMI Level3 인증

## 명도소송 이기고도...장위10구역 '표류'

사랑제일교회 저항에 강제철거 실패 코로나 방역 강화·강제집행 부담 발목 관리처분 인가에도 분양일정 안갯속'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뉴타운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이 이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교회의 강력한 저항과 강제 집행에 대한 부담감 등에 발목이 잡혀서다. 현재로서는 분양 일정도 안갯속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측은 최근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장위10구역 조합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수백명의 철거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가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합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장위10구역의 철거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968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질 장위10구역에선 사랑제일교회가 개발보상금으로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매긴 보상금 액수(82억 원)의 7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지난 5월 승소하면서 강제 철거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법원 집행관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시 철거용역과 교인 간 충돌로 극심한 대치가 벌어지면서 부상자까지 발생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까지 있어 집행관이 또다시 강제집행에 나서는 데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위동 A공인 관계자는 “장위 10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연내 분양도 가능했던 곳”이라며 “현재로서는 언제 분양이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성수동 '갤러리아포레'

### '한 달 1500만원' 서울 최고가 월세 아파트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월세는 1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치면 월세가 무려 1억800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또 월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이른바 '월천 단지'는 1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게 제출한 '2019년~2020년 8월 전월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 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면적 192.8㎡)과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 217.8㎡)로 나타났다. 각각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에 거래됐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 원)의 13.4배,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71만 원)의 21.1배에 이르는 값이다.

다음으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08.4㎡)이 월 1300만 원, 강남구 청담동 '청담리든그로브'(전용 213.92㎡)가 월 125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의 경우 전용 59.91㎡가 월 12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 ‘프로포폴 투약’ 애경 2세 법정구속

### 재판부 “허위 진료기록부... 수사 중에도 투약” 징역 8개월 선고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 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중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53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2년이 넘도록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수사를 받는 중에도, 기소유예 처분에도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프로포폴은) 유해염소 직인이 나 배우들이 피부 미용을 이유로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2세 남성도 중독된다”는 것을 확인해 오남용 사례를 널리 알렸다”며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의 다 이어리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병원장 구속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금지하는지 알게 됐다”며 “채 전 대표는 이 잘못이 낙담에서 비롯됨을 책망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종용 기자 deep@



건강하게 자란 아기 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7월 에버랜드에서 국내 첫 자연 번식으로 태어나 생후 50일을 맞은 아기 판다의 사진을 10일 공개했다. 아기 판다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의 10배인 2kg으로 늘었고, 검은 조각을 입은 듯한 특유의 무늬가 뚜렷하며 제법 판다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다. 엄마의 품 속에 안긴 아기 판다의 모습. 사진제공 에버랜드

#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軍 조치대로 휴가 사용”

### 국방부 “민원문건은 내부 보고자료... 휴가, 규정상 문제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가 ‘내부 보고 자료’라고 공식 인정했다. 더불어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공개된 서 씨의 ‘병가 조치 면담기록’은 내부 논의를 위해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복지실에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정원 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기록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모든 사실을 부인했던 추 장관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다만 해당 문건에서 군이 서 씨의 개인휴가 사용을 허락한 것을 알 수 있는 면담 내용이 적시돼 특혜 논란에서 일부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서 2017년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 A 상사는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 씨)으로선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 장관 부부)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또 A 상사는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가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

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고 했다. 이는 군의 조치대로서 써가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병가를 포함한 정원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A 상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국방부는 휴가 관련 시행령, 훈령, 규정에 따라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서 씨의 특혜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대법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

### 코웨이 상대 소송 승기 잡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특허 분쟁 과정에서 얼음정수기 특허를 정당한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 생산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2014년부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2년 출시한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3년 선보인 자사 제품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코웨이는 2015년 4월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 등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이 청호나이스의 정정을 받아들여 코웨이는 다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특허심판원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에서 구체적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에는 특허법의 기재요건 및 정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율러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이 사건의 정정발명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정발명과 같은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성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우와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우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영지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나섰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항가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

14년 시음 / 200쪽 / 국문판형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독후감을 쓰는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될 뿐, 같이 있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원 / 215,800원

# 세브란스 집단감염... 서울 이틀째 40명대 유지

### 코로나, 10일 0시 기준 48명 세브란스병원 확진 17명으로 한강공원 음식배달 자제 요청

서울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하룻동안 48명 증가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 49명보다 1명 줄어든 48명으로 총 4526명으로 집계됐다. 1732명이 격리 중이고 276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특히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10일 10시 기준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날 확진자가 더 나와 총 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9일 처음 확진된 뒤 다른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로구청 관련 확진자도 크게 늘었다. 종로구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명이 8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7명이 추가돼 관



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재활병원의 출입문 앞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진료 및 검사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련 확진자는 총 8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확진자 7명은 무궁화동산에서 나무 전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최초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과 차량을 이용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의 대부분은 같은 근무조 근무자로 작업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은 착용했지만 휴식시간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 일련정중 서울포교소는 관련 확진자가 20명으로 증가했다. 이곳 관련자 1명이 5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까지 15명, 9일 4명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19명이다.

해당 포교소는 창문이 전혀 없는 공간으로 이중, 삼중 폐쇄, 공조를 통한 기계 환기 외 외부 환기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불시간에 좌석 간격을 1m 정도 유지

했으나 계단, 휴게실, 사물함 등에서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영등포구 일련정중 서울포교소를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병상가동률도 낮아졌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51.8%이고, 서울시는 56.8%이다. 서울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8개이고 현재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47개다.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방역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킨 한강공원 내 음식물배달주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차량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은 정규 행사를 포함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해 주고, 종교행사 외 대면 모임과 행사·단체식은 자제해달라"며 "이번 주말까지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IoT 비대면 돌봄 1만 가구로 확대

### 서울시 '어르신 안전사업'

서울시는 고령자 돌봄 공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대상자를 총 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은 독거노인 등의 가정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해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다. 일상을 관리하고 위급상황 시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집에 쓰러져 있는 고령자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하거나 집 밖에서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찾는다.

특히 고령자 가구에서 감지된 데이터는 각 수행기관과 광역기관의 상황판, 담당 생활지원사의 휴대기기로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않거나 온도·습도·조도 등에 이상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3년간 135의 위험을 감지해 조치했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2300가구, 지난해 50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750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새로운 돌봄 모델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 "축적된 비대면 돌봄 서비스 기술로 스마트 복지 기반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성동구, 택배·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 나서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재조명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10일 공포했다.

필수노동자는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 종사자, 의료 지원 인력, 택배 종사자 등 물류와 교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더불어 조례 제정과 공표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적인 실태조사로 재년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

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광역과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적 조건 구비를 위해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인석 기자 mystic@

## 동작구, 폐업 위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동작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기 침체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촉진, 고용불안 해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동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TF팀은 △정부 및 서울시 경제정책 동향 파악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애로사항 파악, 대책 강구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추진 등 업무를 맡는다.



상도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창우(맨 오른쪽) 동작구청장.

소상공인과 골목 경제를 살리기도 나선다. 동작구는 △소상공인 버팀목 긴급자금 지원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추진전략을 세우고 2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홍인석 기자 mystic@

VOREL®

## 우리집 수도물 안심 대책

#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 무독성
- 항균·살균
- 피부고민개선
- 미네랄
- 불순물제거
- 녹제거
- 염소제거
- 절수
- 수압상승

### 유해물질부터 피부고민까지 해결! 보렐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 1 단계 필터시스템으로 불순물 제거  
친환경 이오나이트 필터가 녹물과 불순물, 잔류염소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부유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
- 2 강력한 수압의 미세 살수술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초강력 수압으로 부드러운 물방울이 만들어져 수압이 낮은 가정에서도 용이하게 사용!
- 3 모공 속까지 깨끗한 샤워  
피부 속 잔여 노폐물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 중 하나! 미세하고 부드러운 물 입자가 피부 속 모공까지 깔끔하게 샤워!
- 4 30% 절수 효과  
미세 살수판 효과로 동일한 시간 동안 샤워를 해도 일반 샤워기에 비해 시간당 물의 양이 30%~40% 더 절약!

####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PACKAGE)

프리임(고급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1개(필터 미포함), 필터 3개, 향기캡슐 3종류 각 1개, 선행물용 용이거품  
소비자가격 ~~105,600원~~ → **84,480원**

럭셔리(일품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1개(필터 미포함), 필터 2개, 향기캡슐 1종류 각 1개  
소비자가격 ~~69,300원~~ → **55,440원**

온·오프라인 통합 최저가 **20%**

매일 100분 한정판매 | 온·오프라인 통합 최저가 (카드 3개월 무이자) | 온라인주문

**아람비스토어**

주문전화 **080-600-2020**

# “치매 치료 쉽지 않은데... 양방·한방 가리면 되나요”

##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봄의 전령사 '매화'. 누군가는 치매를 일컬어 '매화에 이르는 길' [致梅]이라 비유한다. '맑은 마음'이라는 꽃말처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병이라서, 또 인생의 겨울 지나 아픔 없이 새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아버지의 치매 발병 이후 의사로서, 자식으로서 오랜 세월 치매를 연구해온 최낙원(崔洛元·68) (사)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성북성심병원장). 그 역시 더는 치매가 '어리석은 병'이라 불리지 않길 바라며 '나는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를 펴냈다.

뇌신경외과 전문의인 동시에 한의학을 전공한 최낙원 이사장.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융·통합 치료를 구상해온 그는 대한기능의학회 창립회장, 보건복지부 치매진단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그가 '치매'에 집중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제가 수련이었던 당시만 해도 신경과가 없었어요. 치매 환자 대부분을 신경외과에서 진료했죠. 덕분에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계기는 아버지의 치매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치매에 걸리셨는데, 당뇨는 우리 집안 내력이었죠. 주변에서는 '네가 의사면서 아버지 병도 못 고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진단되면 나아지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유전적인 요인을 생각하면 저 또한 안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의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치매라는 병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더군요.”



### 현장형 의사로 요양기관 곳곳을 누비다

최 이사장은 자신이 연구해온 치매를 총망라하여 2018년 '치매의 모든 것'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이듬해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그만큼 훌륭한 양서로 평가받았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이 많아 대중이 접근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이에 그는 최근 일반 독자도 쉽게 읽고 이해하게끔 '나는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를 선보이게 됐다. 치매 환자나 가족이 자주 하는 질문을 일러스트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고, 270여 개의 항목을 질의응답식으로 친절하게 풀이했다. 의학용어 설명을 비롯해 직접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충실하게 담아 그때그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어떤 병도 제대로 알면 마냥 두렵지만은 않죠. 특히나 치매는 막연히 공포를 느끼는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가령 뇌수두증, 만성 경막하혈종 등 양성 종양으로 인한 치매는 뇌신경외과적 수술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발생하는 치매도 호르몬 요법을 쓰거나 우리 몸속 미세 금속의 균형을 잡아주면 얼마든지 개선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 치매의 15%는 초기에 잘 대응하면 완전히 기능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대중이 치매를 쉽게 이해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책 구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됐죠.”

이번 책에는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 후 환자와 가족의 대처법, 요양시설의 선택, 치매 관련 제도과 지원책 등 치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듯 폭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현장형 의사'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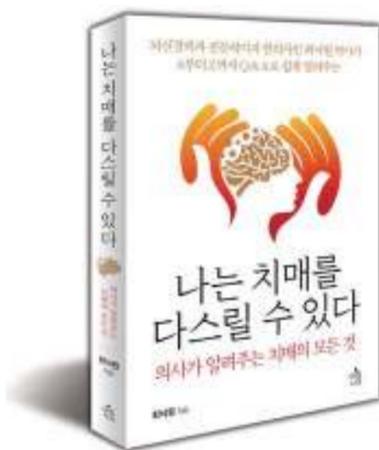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년 정도 지역에서 봉사하며 전국 요양기관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연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전전후로 현장을 누비며 그 병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했다 해도, 제가 겪어온 바로는 아직 국내 요양시설은 열악한 편입니다. 물론 업계 종사자에

아버지 치매 발병 후 오랜 세월 연구 치매의 15%, 초기 발견엔 회복 가능 치료 시기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나는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 펴내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따르기에 마냥 비판할 수는 없죠. 가능하다면 치매에 걸리셔서 익숙한 공간에 모시길 권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심정도 이해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치매 환자를 보면 가족의 애정이 덜할수록 빨리 돌아가시더군요. 시설에 모시더라도 가끔씩 자주 찾아뵙고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환자가 애용하던 물건이나 추억 거리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정서는 남아 있으니까요.”

### 'K-의학'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최 이사장은 매일 시시때때로 '내가 치매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기에, 특히나 가족력이 있기에 염려를 놓을 수는 없다고. 그런 그도 한때는 약물에 의존한 해결책을 찾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치매 치료를 위해 환자가 처방받는 약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와 염산메만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약물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보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완화제로 사용된



12년간 봉사하며 전국 요양기관 답사 원인 복합적인 만큼 치료법 다양해야 고민 끝에 2007년 한의학 공부도 시작 양·한방 견제 대신 치료 위해 힘 합쳐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실제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도 두침(頭針), 이침(耳針) 등 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무엇이 최선이라는 건 없지만, 증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그 치료법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제 오랜 화두는 '의학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 학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이 환자에게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는 양방과 한방을 서로 나눠 분리 의학을 하고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등한시하기도 하죠. 환자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하다 자칫 적절한 치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K-의학'을 모색한다면, 치매를 극복할 날도 조금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요?”

다.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좀 더 복합적인 측면에서 증세를 파악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주변에 내로라하는 전문의들이 있는데, 제게 주는 약들을 보면 소위 혈압 하강제와 아스피린류 등이예요. 무심코 먹다 보니 불현듯 공포가 생기더군요. 이거 내가 약만 먹어서 해결될까 싶었던 거죠. 발병 원인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비만 등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그런 고민을 하다 결국 2007년에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나, 현대의학은 증상 치료인 반면 한의학은 원인 치료니까요. 현재의 몸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내가 뭐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원인을 알면 치매나 다른 질병도 새롭게 접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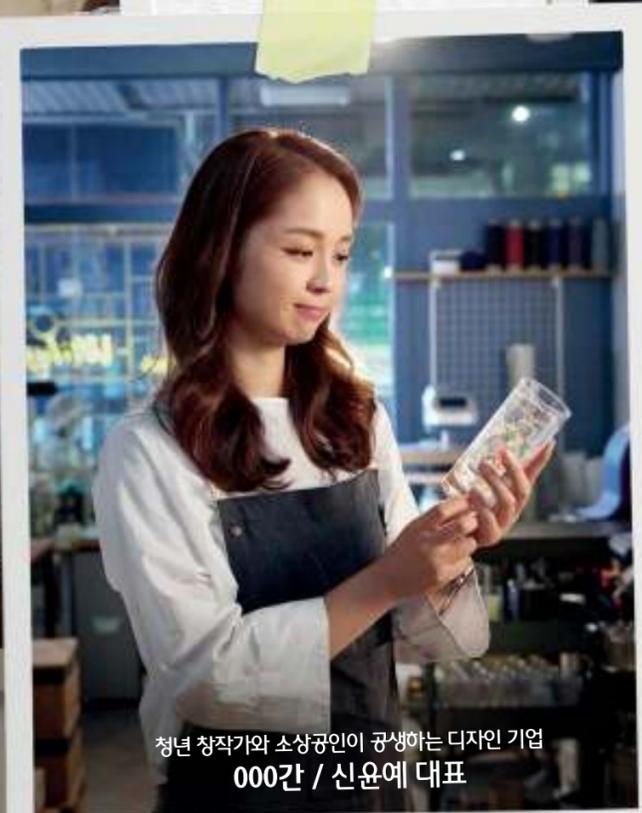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폐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뽕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오펜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예체능 수험생들, 손이 굳어지고 있어요”

### ‘2.5단계’ 피해 호소한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

#### 영업중단 아닌 감시단 활용 방역수칙 어긴 학원 페널티 줘야 학원도 10명 미만 많은데... 교습소만 운영 허용 형평성 위배

“지속된 학원 휴원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이다.”

이유원(사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10일 “2주 후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시작된다”며 “학원들이 이 시기에도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입을 코앞에 앞둔 수험생들이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4일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이달 20일까지 집합이 금지됐다. 학원총연합회는 1957년부터 8만5000여 개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

리두기 연장 조치에 반발해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학원 운영이 중단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음악과 미술, 무용 등 실기를 준비하는 예체능 수험생들은 연습할 학원이 문을 닫아 손이 굳고 있는 상태”라면서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체능 고3 아이들은 학원 운영 중단으로 수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교습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안내하며 원



장과 보조강사 1인으로 운영되는 교습소는 한 반 수업 10인 미만을 준수할 경우 운영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학원 역시 한 반에 1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습소만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

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방역당국이 프랜차이즈 카페만 영업중지를 내렸다가 ‘방역 풍선효과’로 빵집 등으로 사람이 몰리자 이 역시도 봉쇄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에만 계속해서 휴원 조치를 내리고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교외’와 ‘교습소’에는 영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엄연히 방역 당국과 다른 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학원 영업 중단보다 ‘학부모 감시단’ 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요즘 같은 시기엔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두 감시단이 될 수 있다”며 “학원들도 교습소와 형평성을 맞추어 10인 미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검찰 내부비판’ 임은정 부장검사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검찰 내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사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찰청 연구관(검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정책과 검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강화를 통해 신뢰 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청장장애인 성폭력 사건 1심 공판검사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세상에 나오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급 부장검사의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임 부장검사는 정적 4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소송을 내 소송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내부를 향한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은 초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제외한 권력형 비리 단죄로는 정의도, 검찰도 바로세울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해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빌 윈터스 SC 회장, 금융권 취업준비생 화상으로 만나 “미래 금융인, 소셜 파이낸스 관심 가져야”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 회장이 금융권 취업 관련 커리어 멘토링에 참여해 “환경오염 문제나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융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9일 방한 중인 빌 윈터스 회장이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대학생 13명이 비대면 화상 시스템으로 만나는 ‘엔택트 커리어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윈터스 회장은 한 달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는 SC제일은행의 비대면

봉사활동인 ‘엔택트 커리어 멘토링’에 임직원 봉사자로 직접 나섰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한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다.

이번 멘토링의 주제는 ‘금융 혁신과 미래 금융 커리어’로 윈터스 회장은 미국 월가 생활 등 자신이 직접 겪어온 글로벌 금융인의 커리어를 소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금융 환경의 변화’, ‘미래 금융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 등 국내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윈터스 회장은 “미래 금융인을 꿈꾼다면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 회장이 9일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엔택트 커리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 파이낸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SC그룹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기업들에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

원을 하고, 글로벌 자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충실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윤경숙 △전파방송관리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전략과장 김유식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선임 △홍보담당관-부대변인 김중현

◆디지털조선일보 △취재본부 The AI 편집장 황민수

### 부음

▲전동환(강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씨 별세, 최영희 씨 배우자상, 전우진(SJMK과장)·지현(이코노믹리뷰유통중기부장) 씨 부친상 = 10일,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033-258-2397

▲갈중은 씨 별세, 갈원일(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씨 부친상 = 10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31-787-1500

▲이영재 씨 별세, 조성옥 씨 배우자상, 이정화(대신증권 동부WM본부장 전무)·정수(삼성전자 DS부문 인프라기술센터부장)·정국(APL로지스틱 항만부 부장) 씨 부친상 = 10일, 부산시민장례식장 특301호실, 발인 9월 12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이훈 씨 별세, 이재호(GS스포츠 부장·FC서울 축구운영홍보팀장) 씨 부친상 = 10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31-787-1500

▲서옥자 씨 별세, 윤성호(김해시정축구단 감독) 씨 모친상 = 10일, 경남 김해시 김해시민장례식장 특202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55-900-4000

▲류해술 씨 별세, 조삼모(SBS 전력기획실 정책팀 부장) 씨 모친상 = 9일,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20분, 02-2290-9442

## 지난해 ‘대북외교’ 이어 올해 ‘중동평화협약’으로 후보에 노벨평화상에 목멘 트럼프 “감사하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국교 정상화를 위한 평화협약 체결에 큰 공헌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크리스티안 튀브링에대 진보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과 UAE의 평화협약 체결에 역할을 했다”면서 그를 노벨상 후보에 올렸다. 추천서에는 “다른 중동 국가들도 UAE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국교 정상화가 중동 정세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후보 추천 소식에 대해 “감사하다!”고

트윗했다. 그동안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에 의욕을 보여 왔다. 작년에는 “공정한 선정이 이뤄진다면 많은 이유로 내가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도 자신이 후보로 추천됐다는 기사를 여러 건 리트윗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외교에 노력했다는 이유로 2019년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바 있지만, 수상으로 이어지는 못했다.

노벨평화상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각 나라의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에 주어진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연초 마감됐다. 스웨덴의 청소년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 사람 및 단체에 대한 317건의 추천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 달 9일 오슬로에서 발표된다.

변효선 기자 hsyun@

### SCM생명과학, 세베즈 교수 영입

SCM생명과학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담당 부총장 겸 와이즈만 연구소 설립 기술지주회사 예다의 이사회 의장을 지낸 모르데카이 세베즈(사진) 교수를 전략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베즈 교수는 박테리아와 화학에너지 간 상호관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뽑히는 인물이다.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1981년부터 와이즈만 연구소에 합류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와이즈만 연구소의 부총장과 예다의 이사회 의장을 거쳤다.

SCM생명과학에서 무디 세베즈 교수는 △전반적인 과학기술 분야 조언 및 컨설팅 △기존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및 조속한 사업화 등을 담당한다. 유혜은 기자 euna@

## 현대차, 유명인 SNS 손잡고 유럽서 수소 캠페인

### 19일 DJ 페기 구 ‘수소 비전’ 공연

현대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 수소의 무한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H2U(Hydrogen to you)’ 캠페인을 10일(현지시간)부터 시작한다.

현대차는 NEXO(넥쏘)를 통한 수소 기술의 혁신적인 이미지 선점 및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캠페인의 시작을 독일(베를린)로 선정했다. 독일은 현재 60여 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충전소 400개, 수소차 27만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공격적인 수소 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다.

### 기아차 ‘스팅어’ 구입 선수 모교 후원 프로배구 문성민 첫 주자로 참여

기아자동차가 ‘스팅어 스포츠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로 스포츠 선수가 스팅어 마스터를 구매하면 그가 지정된 모교에 기아차가 후원하는 방식이다. 남자배구 강판스타 문성민(사진) 선수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스포츠협회 소속 스포츠인이 ‘스팅어 마스터’를 구매하면 50만 원 할인 혜택과 함께 출신학교 또는 후배 등에게 총 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방



현대차가 실시하는 ‘H2U(Hydrogen to you)’ 캠페인은 이날을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1년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19일 한국시간 오전 5시에는 DJ ‘페기 구(Peggy Gou·사진)’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소의 비전을 담은 획기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김준형 기자 junior@



식이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크스 배구단 소속 문성민 선수는 스팅어 스포츠 펠로우십 프로그램 후원 대상으로 유년 시절부터 배구를 함께해온 동료인 조영성 코치가 지도를 맡은 안산 본오중학교 배구팀을 선정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임혁 칼럼



브라보마이라이프 대표

당장 170조 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두고 정부의 '팔목 비틀기'식 관치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주요 금융사 CEO들의 연임 또는 징계 문제와 뉴딜금융 참여를 연결지어 수군거리는 소리도 많다. 관치금융의 유혹은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과 금융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뉴딜(New Deal)'은 좌파의 언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원래는 포커 판의 용어였다. 카드를 새로 섞어 돌린다는 뜻이다. 이 용어가 정치판에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의 7대 대통령(1828~1837) 앤드루 잭슨 때다.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내세웠던 잭슨 민주주의의 그 잭슨이다. 그는 재임 중 정쟁으로 떠오른 중앙은행(뱅크 오브 US)의 재인가에 부정적이었다. 중앙은행이 부자들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잭슨은 이런 자신의 입장을 'new bank, new deal'이라는 슬로건으로 압축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 뉴딜은 새로운 의미가 가미된다. 스튜어트 체이스라는 경제학자에 의해서다. 헨리 조지 등으로부터 사상적 세례를 받은 그는 1932년 '뉴딜'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처방이라는 의미였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즐거움을 왜 소련이 독점해야 하는가?"였다.

다. 체이스는 당시만 해도 한창 실험단계였던 소련식 사회주의를 동경한 것이다. (하지만 그도 1950년대 초에는 소련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이 책 제목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키워드가 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후보지명 수락 연설에서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체이스가 루스벨트의 싱크탱크인 '브레인 트러스트'에 참여했던 점이 연결고리다. 당연히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좌파의 색채가 짙었다.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경쟁시장 신봉자들이 뉴딜을 강력히 비판했던 것은 그래서다.

이런 사연을 지닌 뉴딜은 한국에도 이식됐다. 역시나 좌파 성향의 정권에 의해서다. 김대중 정부 때 정보 인프라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 '사이버코리아21'에 첫 '한국판 뉴딜'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업도시 건설 등의 정책이 뉴딜 간판을 달았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3대 축으로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3일에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20조 원의 뉴딜펀드 조성하고 170조 원의 뉴딜금융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의지에 이념 문제 따위로 시비를 걸 여유는 없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거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야심찬 구상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자칫 비블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의 경험이 그 근거다. 김대중 정부 때는 벤처기업에 대한 눈 먼 돈 풀기의 자금지원이, 노무현 정부 때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벤처비블, 부동산비블을 야기했다. 항간에 화제가 된 흥공계 증권사 CLSA의 보고서도 이런 우려와 시각을 같이한다. '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문 대통령의 펀드매니저 데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끓고 있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성장주에 정부가 기름을 부었다고 꼬집었다. 뉴딜펀드가 '큰 거품(big bubble)'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뉴딜 프로젝트가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170조 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두고 정부의 '팔목 비틀기'식 관치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주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연임 또는 징계 문제와 뉴딜금융 참여를 연결지어 수군거리는 소리도 많다. 관치금융의 유혹은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과 금융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뉴딜펀드의 손실보전에 대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지적한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에는 후유증 없는 뉴딜을 실현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판 뉴딜 대신 '문재인 뉴딜'로 간판을 바꿀 수도 있다.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서울대 객원교수

코로나 시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코로나19로 기업의 생산이 줄고 소비가 감소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에너지 소비도 유례없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 세계 에너지 소비가 3.8% 줄었는데, 아마도 이런 상황은 당분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원유 가격이 한때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까? 우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이견이 없다.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셰일혁명 이후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이 약화할지 모른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과 대대적 감산을 합의하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셰일오일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석유나 가스의 주도권이 다시 전통 산유국으로 되돌아가거나, 에너지 거래의 결제수단이 달러에서 중국의 위안화 등 다른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혹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대함을 고려해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소위 'AC

와 BC'로 구분될 정도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짧은 시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었지만,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화석연료의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완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은 '그린딜' 계획을 발표하며 지금의 사태를 친환경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우리도 지난 7월 '그린 뉴딜'을 발표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에서 파급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증시에서 에너지 산업의 지각변동이 촉발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세기 화석연료 시대를 이끌었던 글로벌 석유공룡 엑손모빌이 100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퇴출됐다.

따라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당장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확

대되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에너지 산업을 연상하면 발전소, 정유설비 등 중후장대하고, 사업도 공기업이나 초거대기업 중심으로 보수적이며 변화에 둔감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2010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유발된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코로나19 사태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아닌 자연적 요인이 에너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대규모의 충분한 공급 설비 확충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에너지 안보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분산화 촉진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수송수단의 변화와 정보기술(IT)이나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통합 에너지 효율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분야는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 거대기업보다 중소 전문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간의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만 해도 발전 분야에 이미 민간 사업자가 30% 이상의 설비 점유율을 차지하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2000개가 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소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이 코로나19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발전 등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체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선 경제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에너지 계획부터 정비해 보면 어떨까? 사실 정부가 장기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설비 건설 계획을 수립해봐도 종전처럼 그 계획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 예로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건설되었던 대형 원전이나 석탄화력도 달리,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민간의 경제성 판단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신재생공사'와 같은 전문 공기업만 만드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계획 대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으로 바꾸고, 오히려 목표를 구현할 정책 추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이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만큼 전기요금 등을 보다 원가에 기반한 변동 체제로 바꾸고, 세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이 적정화되도록 해야 한다.

☆ 니키타 흐루쇼프 명언  
"언론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소비에트연방의 국가원수 겸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정치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공존을 모색한 그의 탈스탈린화 정책과 반스탈린주의 정책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공산진영 분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집단지도 체제를 무시한 정책 결정 등으로 많은 반대파를 만든 그는 결국 실각했다. 오늘 그는 세상을 마감했다. 1894~1971.

☆ 고사성어 / 속이원장(屬耳垣牆)  
담장에도 귀가 있다는 뜻으로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조심한다는 말. "언행을 쉽게 바꾸는 바를 두려워해야 하고 말할 때도 담장에 다른 사람의 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조심해야 한다[易輟攸長 屬耳垣牆]." 출전 천자문(千字文).

☆ 시사상식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 정부의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된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긴 하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한다. 이 계층은 정부의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신조어 / 워런치  
'워킹'과 '런치'의 합성어.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는 걷기 운동. 실제 점심시간 산책은 유산소 운동, 일광욕 효과뿐 아니라 오후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유머 / 잘못 간 문자  
"우리 이제 헤어져! 날 사랑하긴 하니? 100일을 쟁겨 주긴 했냐고?"라는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은 남자가 너무 놀라 급히 답문을 보냈다. "영? 우리 만난 지 벌써 100일이나 지났어? 이제 겨우 50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온 여친의 답문. "어머 어째? 미안. 헨편이 낡아서 문자가 잘못 갔나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유혜림 자본시장부/wiseforest@

임원 아닌 근로자를 위한 판결

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단순히 이 사극에 퇴직금을 늘리려는 비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이 보장하는 대상 역시 임원이 아닌 '근로자(직

원)'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임원'은 제외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까지 강조한 배경이다.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받기까

지 그 뒤엔 근로자들이 있었다. 2018년, 첫 판결은 한국감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받아냈다. 이후 한국항공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진 결과다. 최소한 해당 판결을 근거 삼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슬쩍 손본 곳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 그런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은 오늘도 공기업 취업을 다짐한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신의 직장'이라는 꼬리표가 왜 따라오는지 스스로 보여줬다.

코로나19 위기에도 공공기관이 임원들의 퇴직금 늘리기에 나서자 세간의 반목을 샀다.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공공기관들이 임원 퇴직금의 산정 기준을 손보면서다.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체계를 살펴보면, 경영성과금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퇴직급여에 산입하면 예산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위 경영평가를 받은 해, 퇴직하는 임원이 있다면 최대 2배가량 불릴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작년에도 포착됐다. 일부 기관이 "다른 곳도 하다 보니"라면서 말끝을 흐리는 배경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다르

이슈&인물

주류업계 미다스의 손

김일주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

# “술만 온라인판매 제한하는 건 역차별”

‘위스키 대부·위스키 영달(영업의 달인)·주류업계 미다스의 손...’

김일주(60)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38년간 위스키 업계에 몸담아 온 그가 걸어온 발자취가 업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37년간의 셀러리맨 인생을 접은 그는 자신이 업계 1위로 끌어올렸던 ‘임페리얼’을 전격 인수하며 드링크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김 회장이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드링크인터내셔널에 주류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는 후발 브랜드를 1위로 올려놓는 저력을 지녔다. 김 회장의 손을 거친 브랜드들은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두산씨그램에서 ‘원저’를 1위 브랜드로 올려놓았고, 진로발렌타인에서는 ‘발렌타인’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임페리얼 역시 진로발렌타인 시절 그가 시장 1위로 끌어올린 브랜드다. 위스키업계 1위로 도약한 골든블루의 초석을 다진 것 역시 그다.

**종량세 도입 가성비 주류 즐길 기회 늘어**

위스키뿐만 아니라 올해 주류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세법이 개정됐고 전통주를 제외하고 불가능했던 온라인 판매의 빗장도 다소 완화됐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주류 O2O가 허용된 것이다.

김 회장은 일단 종량세로 과세 체계가 변경되면서 경직됐던 주류업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 도입으로 다양한 수제 맥주가 소개되고 토종 수제맥주 브랜드들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향후 위스키 등 다른 주종으로도 종량세가 확대되면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주류를 다양하게 즐기게 될 겁니다.”

주세법은 개정됐지만 주류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는 여전히 많다. 최근 도입된 주류 O2O는 주류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한 정책임을 그도 공감한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언택트 트렌드가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대면해서 제품을 픽업하는 제도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와인 등 일부 주종의 판매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주류 업계 전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죠.”

**온라인판매 빗장 풀면 가격경쟁 일 것**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주류산업이 위축된 요즘이야말로 온라인 판매 금지의 빗장을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미 중국이나 일본, 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커머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주류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한국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커머스가 대중화된 국가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주류 유통사들의 가격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이커머스는 판매채널이 추가된다면 시장 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등을 우려해 온라인 판매 규제를 이어가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전자담배나



국내 위스키업계의 역사와 함께 해온 김일주 회장이 위스키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전통복장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픽업**

**주류 O2O 허용 숨통 트였지만**

**프로모션·광고 등 제약 많아**

**전자담배·성인용품처럼**

**성인인증 후 구매 허용해야**

**코로나로 주류 패러다임 변화**

**양적 음주에서 질적 음주로**

**업소 회식 대신 홈술 트렌드**

**고급 주종도 집서 즐기는 시대**

**가격 내려야 위스키 소비 확대**

성인용품의 경우 성인 인증 후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에 대해서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주류에 관해서는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이나 광고에도 제약이 많다. 심야시간대에만 TV광고를 내보낼 수 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도 제한적이다. 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류업계, 젊은층 음주문화 주목해야**

코로나19는 주류업계의 위기다. 그러나 그는 위기 속에서 소소한 변화를 읽어냈다. ‘양적 음주’에서 ‘질적 음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회식이나 업소에서 술을 마실 때 ‘폭탄주’로 대표되는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면 요즘은 집에서 맛을 음미하며 홈술을 즐기는 이들이 늘었다. 고급 주종을 업소가 아닌 집에서 즐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소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다양한 주종을 맛보고 자신의 기호를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주류가 주로 소비되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의 영업 제한으로 도매상과 제조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홈술’이 업계에 희망적

인 메시지임은 분명하죠.”

김 회장은 최근 젊은 층의 새로운 음주문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한 MZ세대는 독주나 폭음과는 거리가 있는 음주문화를 즐긴다. 이들은 소주를 소토닉(소주+토닉워터)으로 즐기고 위스키를 하이볼(위스키+탄산수)로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 그가 몸담은 위스키 업계에서 저도주를 잇달아 내놓는 것도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그는 위스키 역시 언더라이나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믹스앤매치를 통해 각테일로 즐기도록 한다면 시장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요즘 술과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을 찾는 것에 심취해 있다. 와인의 마리아주와 같은 소주, 위스키와 궁합이 맞는 음식을 찾는다면 식품·외식기업과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석다.

**제조사·도매상·업소 상생 필요할 때**

그는 위스키업계에서도 보다 저렴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젊은 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의 위스키가 늘어나면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난해 위스키 소비 확대를 위해 임페리얼의 출고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맥주, 막걸리에 적용된 종량세 효과가 위스키에까지 확산된다면 가성비 위스키도 늘어나겠죠. 과거에는 업소 영업 경쟁을 펼쳤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주로 경쟁해온 업체가 이제 가성비로 승부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그는 업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은 상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식당과 유흥업소, 도매상, 제조·수입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규제 개선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조금 더 팔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경쟁을 펼친다면 지금의 위기가 언젠가는 기회로 해석될 날이 있을 겁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사설

##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태풍 및 폭우 피해가 큰 농축수산물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추경이 한 해에 네 차례나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만큼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 고통이 심각한 실태를 반영한다. 4차 추경은 더 이상 재정의 여유가 없어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나라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 2, 3차 추경으로 59조 원을 편성하면서, 이미 3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작년 38.0%에서 45% 안팎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추경의 절반 규모인 3조8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 집중된다. 이 중 현금지원분이 3조2000억 원으로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

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고용유지와 일자리 분야에 1조4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88만 명이 새롭게 생계지원을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20만 원씩 줬던 특별돌봄 지원대상도 초·중·고생까지로 확대한다.

그럼에도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돕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으로도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에 모자란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마당에, 국민 대다수에 지원하는 2만 원의 통신비가 민생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고 내수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포퓰리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격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정투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산업 전반의 경기 추락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현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들이 우선 버텨낼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법률, 특!

### 상속분쟁과 성년후견제도

치매 노인 같이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이처럼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보면, 많은 경우 자식들 사이에 부모님 재산 관리나 처분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 ‘65억 금고’ 사건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 화제가 난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금고 130개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는 이를 집주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훔쳤는데, 나중에 이 업자가 검거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금고는 그 집에 살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세상을 뜨는 바람에 다른 가족들은 금고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이후 어머니가 이 금고를 상속

받았는데, 누나가 어머니와 함께 사라져 다른 형제들과 연락을 끊어 버렸다. 누나가 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신다는 명목으로 다른 자식들과의 접촉을 끊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했다.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누나가 어머니의 재산에 더는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부모님이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주자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부모님 마음대로 재산 관리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산을 주고 싶은 자식에게 재산을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부모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선임 이전에 했던 재산 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은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혼자 재산을 받은 자식을 공격할 수 있는 꽤 쓸모 있는 수단이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SAMSUNG



## 국내유일 전 용량 에너지 소비효율 보유 1등급 건조기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 20년 6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품목 신고 기준, 일부 모델 제외

### 삼성 그랑데<sup>시</sup> 1등급 효율가전 스페셜 앵콜

**이벤트1** 세탁기/건조기 그랑데<sup>시</sup> 1등급 패키지 구매하시면 30만 상당 혜택!

**이벤트2** 그랑데<sup>시</sup> 최대용량 1등급 패키지 + 에어드레서 동시구매 시 에어드레서 무상증정효과!

행사기간 2020년 9월 8일 ~ 2020년 9월 21일

## 삼성 그랑데<sup>시</sup>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

\* 이벤트1 행사 대상 제품(삼성그랑데<sup>시</sup>)은 24kg 세탁기+16kg 건조기 올인원 컨트롤 모델에 한함, 일부 모델 제외  
\* 이벤트2 행사 대상 제품(삼성그랑데<sup>시</sup>)은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올인원 컨트롤 모델에 한함, 일부 모델 제외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상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에어드레서 리얼블랙(DF60T8301KG) 삼성닷컴 혜택가 기준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